

은퇴설계를 위한

하나 행복가이드

향후 퇴직연금시장의 변화 전망 및 시사점
베이비붐세대 은퇴 후 주거 선호 형태와 시사점





Contents

이슈 포커스	향후 퇴직연금시장의 변화 전망 및 시사점 베이비붐세대 은퇴 후 주거 선호 형태와 시사점	1
경제 트렌드	공급제약에 직면한 일본경제와 엔저의 지속성 분석 외인 거래에 따른 채권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 국제환율을 둘러싼 논란 및 향방에 주목 주식시장은 대형주 중심의 회복세 예상	9
노후 재무 설계	제조사 재직 K씨, 높은 노후 생활비 고려 금융자산 확대 요구 금융자산은 안정성을 중시하는 안정추구형 전략이 유효 투자상품은 국고채 및 채권형 펀드 중심으로 상품 구성	17
국내외 단신	美 중산층, 노후준비의 중요성은 인식하나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 장년 고용 종합대책 발표 전직지원 서비스, 근로자 생애설계 관점에서 접근해야	20
상품브리프	노후 의료비 부담을 해소하는 건강보험	24
부동산 따라잡기	부동산 3법 개정을 두고 정치권 힘겨루기 지속	26
행복한 노후디자인	겨울철 중요시되는 건강관리법 한방차 효능으로 추운 겨울 건강하게 보내기	28
하나뉴스	하나금융그룹, 중국민생투자유한공사와 MOU 체결 등	30
연금통계		31



향후 퇴직연금시장의 변화 전망 및 시사점



수석연구원 정 승 희
(smiley77@hanafn.com)

“향후 국내 퇴직연금시장은 각종 환경 변화에 따라 ‘대기업 대상 DB형’ 위주에서 ‘중소기업·개인 대상 DC형 및 IRP’ 중심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DC형 및 IRP 고객기반 확보는 수수료수입에 국한된 금융기관의 퇴직연금사업을 교차판매는 물론 자산관리업까지 확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호주, 미국 등에서는 퇴직연금가입자를 대상으로 금융상품의 교차판매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시장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여 DC 및 IRP 사업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상품 및 서비스, 개인고객 대상 은퇴자산관리 서비스 제공 등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

난 2005년 말 국내에 도입된 퇴직연금은 초반에는 실적이 저조하였으나 퇴직연금사업자의 적극적인 마케팅과 정부의 제도 개선 등에 힘입어 적립금 규모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14년 6월말 현재 87.5조원의 시장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기존 퇴직금제도와 유사한 DB형의 비중이 69.1%로 DC형(21.7%) 및 IRP형(9.2%) 대비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적립금의 대부분이 원리금보장형 상품으로 운영되는 등 양적인 성장에 비해 아직까지 질적인 변화가 더딘 편이다. 그만큼 국내 퇴직연금사업자의 비즈니스도 금리위주의 가입자 유치에만 초점이 맞추어 진행되어 왔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에서는 퇴직연금시장의 확대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인 개선책을 모색 중에 있다. 본고에서는 향후 각종 환경 변화에 따른 퇴직연금시장의 변화 방향을 전망해보고 해외 금융기관의 사례를 통해 향후 국내 금융기관의 퇴직연금 비즈니스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각종 제도 변화는 DC형 및 IRP 확대를 촉진

각종 환경 변화에 따라 향후 국내 퇴직연금시장은 현행 '대기업 대상 DB형' 위주에서 '중소기업/개인 대상 DC형 및 IRP' 중심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먼저 제도 변화 측면에서는 지난 2012년 7월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을 비롯해 IFRS 2단계 도입 등의 제도 변화가 모두 DB형보다는 DC형 및 IRP 시장 확대를 촉진하는 방향이다. 이에 더해 최근 발표된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에서는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비롯해 DC형 위험자산의 운용한도 완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등 DC형 시장의 확대를 촉진할 가능성이 높은 제도 변화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반면 DB형은 수급권 보호 강화를 위해 사외적립비율이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되는 등 운영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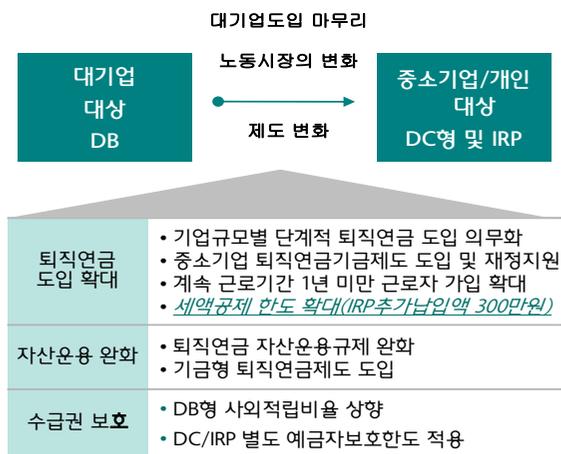
이 강화되면서 DB형 가입기업의 부담이 보다 증대되는 방향이다. 뿐만 아니라 2015년부터 연금계좌 세액 공제와 별도로 퇴직연금 추가 납입분에 대해 연간 300만원이 세액 공제될 예정으로 이에 따른 IRP 시장의 확대가 예상된다. 매년 추가 적립하는 근로자가 확대되어 2020년 연금저축 수준으로 가입률이 상승한다고 가정할 경우 오는 2020년 IRP시장은 약 40~50조원의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노동시장의 변화 또한 DC형 확대를 촉진

연공서열·종신고용 중심에서 성과주의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노동시장 또한 노동의 유연성과 통산장치가 원활하게 작용하는 DC형에 대한 니즈를 확대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내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4년 11개월이며 비정규직은 1년 9개월에 불과한 상황으로 퇴직급여제도에서 이직에 따른 통산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의 사업장은 2016년부터,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17년부터 정년 60세가 법적

퇴직연금 관련 제도 변화



자료 : 금융위원회, 하나금융경영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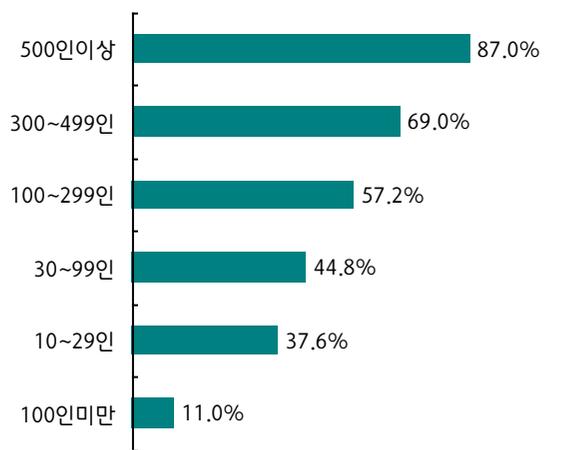
으로 보장되는 정년연장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임금체제 개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 편으로 특히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의 근로자들은 DB형보다는 매년 정산되는 DC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는 DC형 가입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DB형에서 DC형으로의 재편은 완만하게 진행

한편 2014년 3월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77.3%인 반면 중소기업의 도입률은 아직까지도 15.3%에 불과한 수준이다. 대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만큼 향후 국내 퇴직연금시장은 중소기업의 신규 가입을 통해 추가적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대기업에 비해 도산 위험은 상대적으로 큰 반면 임금상승률이 낮은 중소기업의 경우 DC형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편으로 향후 중소기업의 가입 확대는 DC형 시장 확대의 또 하나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향후 국내 퇴직연금시장은 DB형보다는 DC형 및 IRP중

기업 규모별 퇴직연금 도입 현황



주 : 2014년 3월 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심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아직까지 국내 자본시장은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장기자산 형성을 위한 상품구조나 인프라가 발전하지 못해 DC형 제도가 성장 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한다. 반면 국내 DB형의 경우 퇴직 이후부터 사망시점까지 퇴직급여를 보장하는 미국 등 주요국의 DB형과는 달리 퇴직 시점에서 퇴직급여 재원이 결정, 운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따라서 향후 DC형 및 IRP의 가입이 증가하더라도 기존 DB형 위주의 시장 구도가 DC형으로 재편되는 속도는 완만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변화는 퇴직연금 사업모델 변화를 야기

그렇다면 이러한 퇴직연금시장의 변화는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기관의 비즈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무엇보다도 DC형 및 IRP 고객기반 확보는 운용수수료 확보에 국한된 금융기관의 퇴직연금사업을 교차판매는 물론 자산관리업까지 확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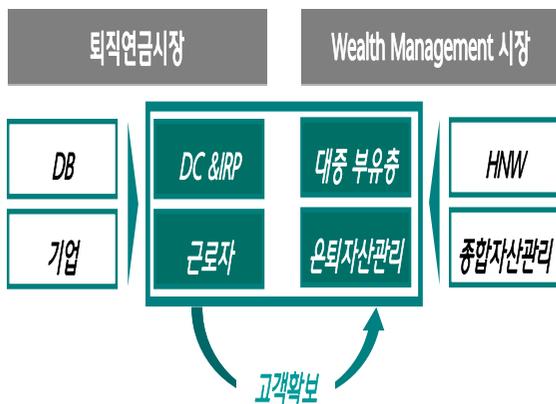
DB형의 경우 기업이 퇴직연금사업자를 교체하면 개인

고객(가입자)도 동시에 이탈할 가능성이 높으나 DC형 및 IRP 가입자는 중도해약에 따른 불이익을 개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이탈 가능성이 낮다. 또한 DC 및 IRP의 경우 급여 통장과는 달리 근로자가 직접 선택한 금융기관의 계좌라는 점에서 향후 지속가능성이 높다, 반면 DB형은 사용자가 금융기관을 선택, 근로자의 주거대출 은행과 불일치할 가능성 존재 한다. 퇴직연금계좌는 노후에 가입자에게 급여를 지급해준다는 점에서 급여통장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며 가입기간이 경과할수록 저축수단이나 여유자금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즉, 기존 퇴직연금사업의 주요 고객이 기업이었다면 향후 퇴직연금사업의 주요 고객은 개인인 DC 및 IRP 가입자라고 볼 수 있다. 이들 고객에게 매달 자산운용보고서를 송부하고 고객 유형에 맞는 상품 및 자문서비스를 제시한다면 퇴직연금사업은 기존의 운용수수료 수입 확보에서 벗어나 교차판매 및 자산관리서비스로의 확대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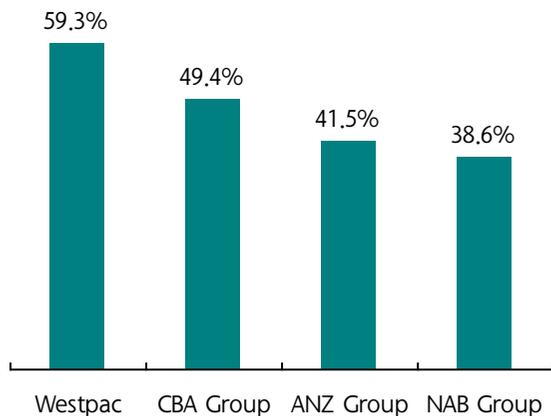
특히 현재 고액자산가에 집중된 금융기관의 자산관리 비즈니스의 고객기반을 퇴직연금의 주요 가입자인 대중 및 젊은 고객층으로 확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자산관리비즈니스 고객기반 확보



|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호주 4대 은행 퇴직연금가입자에 대한 교차판매



| 주 : 2012.8~2013.7 실적 기준
자료 : Roy Morgan

보인다. 미국의 경우 최근 자산관리서비스가 금융자산 10~100만 달러의 대중부유층으로 확대된 바 있으며 국내에서도 고령화,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체계적 자산 관리에 대한 니즈가 기존 부유층에서 대중 및 젊은 층으로 확대되는 등 전세계적으로 개인대상 자산관리서비스가 기존의 고액자산가 시장에서 대중 부유층 대상 자산관리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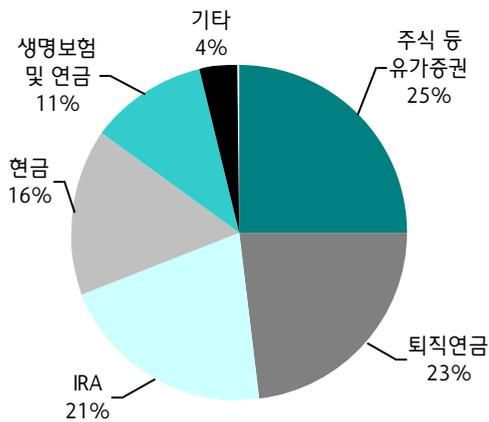
DC형 및 IRP를 통해 확보한 대중고객층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현재 고액자산가에 국한된 자산관리 사업을 일반 근로자 및 자영업자 그룹으로 확대할 수 있다.

선진국, 퇴직연금가입자 대상 교차판매 활성화

실제로 호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퇴직연금 가입자의 고객정보를 활용, 라이프 사이클 및 특성에 적합한 금융상품의 교차판매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

호주 퇴직연금시장에서는 퇴직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차판매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 소매형 기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4대 은행 그룹의 경우 교차판매 비율이 최대 60%에 달한다.

미국 대중 부유층의 자산 구성



| 주 : 25만~100만 US달러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가구를 대중 부유층으로 정의
자료 : Deloitte Center for Financial Servi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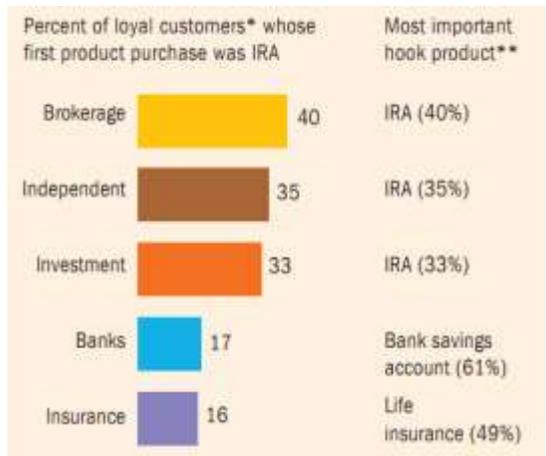
미국의 경우 대중 부유층 자산의 40% 이상을 DC 및 IRA(개인형 퇴직자산계좌) 적립금이 차지하는 등 퇴직 연금이 대중 부유층 자산관리비즈니스의 주요 기반이다. 특히 IRA는 대부분의 금융산업에서 충성도 높은 고객을 해당 금융기관에 최초로 유치하는 미끼상품으로 활용되고 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이러한 트렌드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사업방향을 재설정해야

따라서 퇴직연금 사업자는 이러한 시장의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여 일차적으로는 현재 대기업에 치우친 퇴직연금 사업의 방향을 중소기업 및 개인을 대상으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를 교차 판매 및 자산관리 고객 기반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상품 및 서비스, 개인고객 대상 은퇴자산관리서비스 제공 등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해외와 같은 수준으로 교차판매가 활성화되려면 현재와 같이 IRP 계좌에서 퇴직금이 바로 인출되지 않고 노후자금으로 장기간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는 것이 필요조건이다.

미국 IRA 가입자에 대한 교차판매 비중



| 주 : *는 주요 금융기관으로부터 3개 이상의 금융상품을 가입한 고객
**는 loyal customer가 가장 최초로 가입한 금융상품
자료 : Mckinsey



베이비붐세대 은퇴 후 주거 선호 형태와 시사점



수석연구원 백종호
(jongho.baek@hanafn.com)

“은퇴를 앞둔 현재 중장년층은 노후 주거계획 준비 시 이전세대와는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에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베이비붐세대는 아파트에 자가로 거주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은퇴이후에는 지방 소규모 단독주택에서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베이비붐 세대들이 전원생활에 대한 막연한 동경으로 선택한 전원생활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 부동산 자산비중을 낮춰 유동성 및 환금성을 높이는 식으로 자산관리가 필요하다. 은퇴에 임박하여 급박하게 주거지를 선택하기보다는 시대상황 및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다양한 관점에서 주거계획을 고려할 시점이다.



베이비붐세대들은 이전세대와는 다르게 노후 주거계획을 준비할 필요

은퇴설계를 하는 데 있어 최소한의 목표는 미래의 의식주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거동이 불편해지고 변화를 싫어하는 은퇴 생활자에게 주거지는 삶 전체에 큰 영향을 준다. 주택은 자산인 동시에 의식주의 주생활을 담당하는 중요한 생활수단으로 은퇴후 주거 계획은 은퇴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중의 하나이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자녀가 부모를 봉양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왔다. 그러나 자녀들의 부모봉양에 대한 의무감이 줄어드는 동시에, 은퇴후에 본인이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고자 하는 독립적인 성향이 증가함에 따라 자녀들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트렌드는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 이에 현재 은퇴를 준비하는 베이비붐세대들은 이전과는 다르게 노후 주거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중장년층들은 결혼 후 자녀의 성장에 따라 주거공간을 늘려오다가, 자녀가 출가한 이후에는 집의 면적을 줄이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겨왔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주택이 주거수단 외에 부와 신분을 상징하는 지위재의 성격을 갖고 있어 주택크기를 줄이는 게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게다가 다른 곳으로 이주하려 해도 오랫동안 공동체 삶을 함께해온 이웃들과도 헤어져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이 은퇴후 주거선택에는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이와 같이 베이비붐세대는 자녀출가, 은퇴, 고령기 진입에 따라 새로운 주거형태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민 주거생활을 설문조사를 통하여 파악하고자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베이비붐세대의 은퇴이후 주거패턴 변화와 주거 선호 유형 등을 통하여 향후 새롭게 발생하는 주거니즈에 대한 파악은 물론, 은퇴후 주거를 계획할 때 고려해야 할 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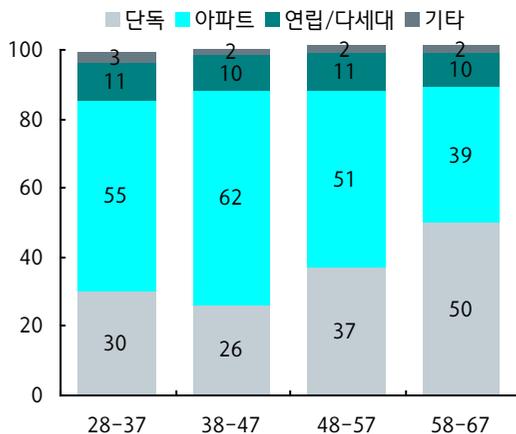
베이비붐세대는 아파트에 자가로 거주하는 것이 일반적

베이비붐세대의 거주지역은 전국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서울/수도권 거주비율은 50%로 이후 세대보다는 낮고 이전세대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지방거주 비율이 높아지는 성향이 관찰되었다. 거주 주택유형은 아파트(51%)가 가장 많았으며, 단독주택(37%), 연립/다세대(11%)의 순이었다. 아파트 거주 비율은 이후 세대보다는 낮고 이전세대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아파트 거주 비율이 낮아지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주택점유 형태별로는 자가 59%, 전세 19%, 월세 19%, 기타 3%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자가점유 비율이 높아지며, 60세 이상 고령세대에서도 자가취득이 진행되었다.

거주 주택규모는 60㎡이하 41%, 60~85㎡ 34%, 85㎡초과 24%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규모를 타세대와 비교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주택규모는 커지며 60세 이상 고령세대에서도 주택규모를 상향하는 비율이 더 많다는 것이 관찰되었다.

연령별 거주주택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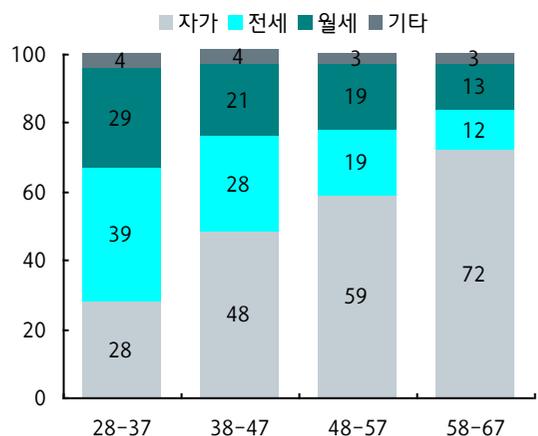
자료 : 국토교통부, 주택산업연구원

결국 베이비붐세대는 소규모 아파트(60㎡이하)에 자가로 거주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주거패턴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타 연령대와 비교할 경우, 이후 세대보다는 지방거주, 단독주택 거주, 자가 비중이 높았으며, 직장에서 은퇴를 먼저 시작한 이전세대가 베이비붐세대보다 상대적으로 자가점유 비율이 10%이상 높고 주택 규모도 넓은 것으로 나타나 은퇴 이후에도 자가취득이 진행되고 주택규모도 넓혀가는 것으로 판단된다.

은퇴 이후에는 지방의 소규모 단독주택에서 전원생활을 희망

베이비붐세대를 연령별로 은퇴후 거주 희망생활양식에 대해서는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경우는 약 50%, 도시생활을 희망하는 비율은 약 32%로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거주지역별로 구분하여 희망 생활양식을 보면, 서울 거주자는 도시생활 45%, 전원생활 40%로 응답해 도시생활에 대한 희망비율이 높은 반면, 수도권, 광역시, 지방 거주자는 도시생활보다는 전원생활에 대한 희망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주택점유 형태



자료 : 국토교통부, 주택산업연구원

소득수준 및 자산보유별로 은퇴 후 희망 생활양식에 대한 응답은 전반적으로 도시생활보다 전원생활에 대한 희망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득이 높고, 자산이 많을수록 도시생활에 대한 희망 비율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희망 주택유형은 단독주택(50%) 이 아파트(25%)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은퇴후 거주지역, 생활양식에 대한 응답결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은퇴후 전원생활에 대한 희망비율이 높은만큼 전원생활에 적합한 단독주택 유형의 희망비율도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소득수준 및 자산보유별로는 대부분 단독주택 유형을 희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소득 및 자산수준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은퇴후에 아파트 유형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 및 자산수준이 높을수록 도시생활을 희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베이비부머세대들은 은퇴이후 지방 단독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아파트에서 도시생활을 희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베이비붐세대 은퇴후 항목별 주거선호

구분	내용
전체	(지역) 지방 및 전원생활을 선호
	(유형) 단독주택 선호도가 높음
거주지역	(지역) 대도시 거주자는 대도시 선호
	(유형) 아파트 거주자는 아파트 선호
소득/자산	(지역) 고소득자일수록 대도시 선호
	(유형) 고소득자일수록 아파트 선호

전원생활에 대한 신중한 접근 외에 주택 다운사이징 및 주택연금 고려할 필요

앞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베이비붐세대는 은퇴이후 전원생활 희망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원생활은 선택하고 나면 되돌리기가 어렵고, 예상밖의 비용이 발생하거나 생활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전원에서의 생활비가 도시보다 저렴하다고 생각되나, 실제로는 도시보다 비용이 더 들 수가 있다. 더욱이 건강이 악화될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없는 등의 이유로 생활이 불편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전원생활과 함께 귀농귀촌을 꿈꾸는 사람들도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다. 과거에는 귀농귀촌이라고 하면 자연환경이 좋은 곳에서 여생을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요즘은 비즈니스로 생각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 귀농귀촌한 가구 가운데 상당수가 정착에 실패하고 도시로 돌아오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농사에도 기술과 노하우가 필요하고 이를 습득하는 데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뿐만 아니라 육체노동이 고되고 힘들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 데에 주로 기인한다.

베이비붐세대 은퇴후 주택 유동화 방법

구분	내용	장단점
주택연금	거주 주택을 담보로 연금 수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가격 하락 해지 가능 - 해당 주택에 평생 거주가 의무사항이기에 이사 불가
다운사이징	소규모 단지나 타지로 이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지 관리비 절감 - 주택 규모 축소로 인한 상실감, 외부의 부정적 시선

다음으로는 앞서 살펴본 연령대별 주택점유 형태를 보자. 이에 따르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자가비중이 높아지고, 특히 58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주택점유는 자가 형태가 72%로 전체 가구 대비 현저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하여 가계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다.

하지만 부동산은 은퇴 후 생활자금이 필요할 때 쉽게 현금화할 수 없다는 단점을 보유하고 있다. 높은 가치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도, 금융자산이 부족하다면 적자에 직면할 수 있다. 기존의 주택을 유지하기보다는 은퇴 후에는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없는 실물자산의 비중을 줄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기존 집을 다운사이징하거나 부동산을 은퇴후 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택연금을 통하여 원활한 현금흐름의 창출이 가능하다.

은퇴 이후 주거지 선택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필요

고령기의 생애주기가 늘어남에 따라 안정적인 노후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부동산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은퇴 후에도 근로 욕구, 자녀나 친지와의 근거리에서 거주하고 싶은 욕구 등 다양한 니즈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은퇴이후 향후 주거형태는 다양한 패턴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국내에서는 노후생활이 늘어나고 과거와 달리 은퇴자들이 건강하기 때문에 은퇴 이후에도 지속적인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을 선호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진 전원주택과 실버타운의 인기가 줄어들고 있다. 전원지역에 지어진 거주시설에서 안락하게 노후를 지내는 실버타운은 깨끗하고 편리하지만 입주비와 관리비가 비싸고, 외부와 왕래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적자가 지속되거나 잘못된 운영으로 파산하는 실버타운이 늘고 있다.

해외에서는 은퇴자들이 은퇴 이후에도 주변환경 변화 없이 도심이나 도시 근교에 자신이 살던 집에서 살아가는 내 집에서 나이들기(AIP: Aging In Place) 개념이 오래전에 시작되었다. 시니어타운이나 노인 커뮤니티가 은퇴자들을 위해 별도의 공간을 조성하여 지원하기 위한 것인 반면, AIP는 은퇴자들을 지역사회 일원으로 편입시키는데에 중점을 둔다. 이는 은퇴자들이 친숙한 환경에서 생활함으로써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도 AIP에 대한 개념을 따라 지역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시키는 움직임이 늘어가고 있다. 이는 주위에 병원·도서관·극장·체육시설과 같은 편의시설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에 따라 생활의 만족도가 크게 달라지고 주위에 어떤 이웃과 왕래하고 얼마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지가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은퇴를 앞두고 있는 중장년층들은 은퇴 후 주거지를 선택할 때에 다양한 기준을 고려하여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한다. 물가나 세금과 같은 경제적인 측면, 자연환경, 도서관 등 문화시설, 의료시설, 대중교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곳을 발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본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은퇴후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차원에서 취미, 봉사, 종교활동 등을 중심으로 주거지를 선택하는 것도 가능한 대안이 될수 있다.

은퇴자들은 시대 흐름에 맞게 재무적·비재무적 관점에서 주거상황에 대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연령별로 라이프스타일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적합한 주거환경도 바뀌게 된다. 60세 전후에 은퇴해 80세까지 산다고 해도 거주기간이 20년이나 되기에 긴 시간을 어디서 살지를 결정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급제약에 직면한 일본경제와 엔저의 지속성 분석



연구위원 **곽영훈**
(yhwak@hanafn.com)

“일본경제가 소비세인상의 직격탄을 맞았다.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다. 그러나 아베노믹스 시행 이후 부각되고 있는 '공급제약'이 더 큰 원인이라는 주장도 있다. 디플레이션이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공급제약이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행은 경기부양을 위해 10월말 전격적인 추가 양적완화를 실시했다. 하지만 이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공급제약을 더 심화시킬 우려도 있다. 이로 인해 과도한 엔저행진과 주식 및 채권의 가격상승이 지속되어 향후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우려된다.”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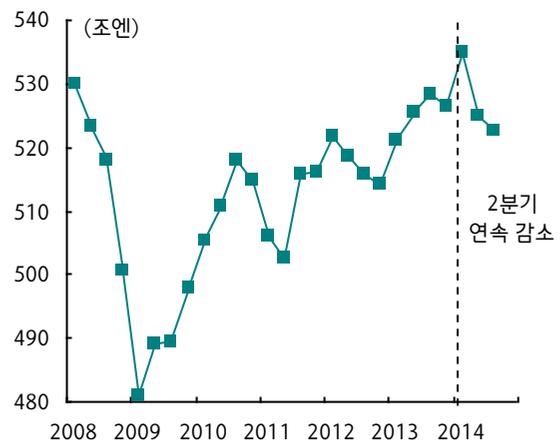
본 경제의 2분기 연속 부진은 예상외의 일이다. 일본은행이 추가완화책을 통하여 긴급복구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아베노믹스의 실패는 일본경제의 재생불능을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때문에 중간에서 포기하기 어렵다. 그러나 노동력부족과 설비노후화 등 공급제약이 경기 회복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경제의 전망은 매우 불투명하다. 이로 인한 어느 정도의 엔저 진행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추가완화 이후 엔저 진행 속도는 물론 주가상승과 금리하락도 과도한 편이다. 이러한 과잉반응이 향후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물론 수출입 등 실물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점검과 대응이 필요하다.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으로 아베노믹스 실패 우려 확산

일본경제가 3/4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자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치가 떨어지고, 아베노믹스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인 예측이 확산되고 있다. 애초부터 소비세 인상으로 2/4분기중 마이너스 성장은 불가피하겠지만 3/4분기에는 충분히 플러스로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3/4분기 GDP성장률은

실질GDP 2분기 연속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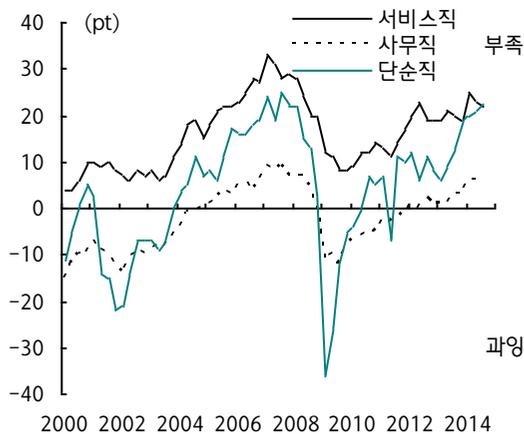
자료 : 일본 내각부

-1.6%로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아베노믹스의 실패 우려가 고개를 들자 금융 및 재정 정책의 강도와 시기를 재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또한 이를 뒷받침할 정치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일정도 변경하였다. 엔/달러 환율이 120엔에 다가서고, 추가적인 소비세 인상은 사실상 연기되었으며, 중의원 해산과 조기총선 등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현재 일본의 경기부진이 소비세 인상의 영향만이 아니라 거시경제의 회복력 약화 등 구조문제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점이다. 세율인상이 소비부진을 초래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설비투자자와 수출마저 부진한 것은 세금요인 외에 구조적 결함이 일본경제에 내재되어 있다는 반증이다. 아베노믹스의 한 축인 구조개혁도 공급제약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디플레이션의 장기화가 현재의 공급문제를 발생시킨 원인

수요부족에서 발생한 디플레이션이 공급제약 문제를 야기하는 매우 역설적인 상황이다. 과거 버블시대의 3대 과잉부문(설비, 고용, 부채)이 현재 공급제약을 겪는 부문으로 바뀌었다. 장기간의 디플레이션이 설비투자자와 고용을 억제하고 부채조정 압력을 높였기 때문이다.

직종별 노동자 과부족 상황



자료 : 일본 후생노동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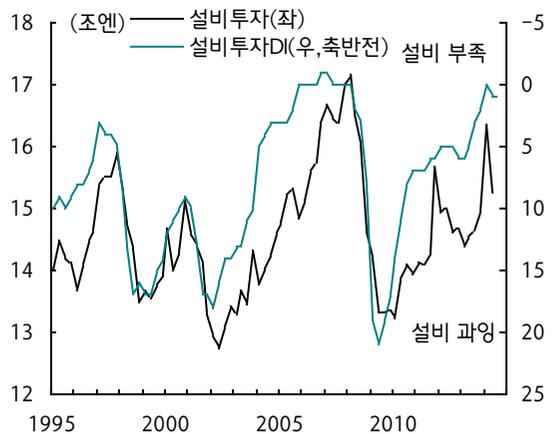
공급능력의 부족은 정책변경 등 강한 외부충격에도 경기가 반응하기 어려운 상황을 설명한다. 공급제약이 장기적인 경제성장은 물론 단기적인 경기회복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아베노믹스로 인해 내·외수의 제한적인 회복이 진행되었지만 공급제약으로 상쇄되면서 기대만큼의 경기개선이 안되고 있는 것이다.

설비노후화, 노동력 부족 등 공급제약이 경기회복을 억제

설비부족과 일손부족이 대표적인 공급제약이다.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 해외생산 확대 전략으로 일본내 설비부족 및 노후화가 진행되고,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 인구구조의 변화가 노동력부족을 낳았다. 엔저에도 일본의 수출회복은 제한된 반면 일본기업들의 현지생산 및 수익성은 크게 회복되고 있다.

고용부문에서는 건설과 서비스 부문의 공급제약이 심각한 편이다. 내수회복을 목표로 하는 아베노믹스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 중심의 일손부족 문제가 부각된 상태이다. 10월중 전산업의 유효구인배율은 1.14배이나 건설업, 서비스업의 경우 3~5배 정도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정규직 유효구인배율은 0.6~0.7배로 여전히 1을 하회하는 상황이다.

설비부족과 신규설비투자 추이



자료 : 일본 내각부, 일본은행

일본 국내의 설비투자 부진 지속 및 설비노후화의 진행도 잠재성장률을 큰 폭으로 감소시키는 대표적인 공급제한 문제이다. 단칸 설비투자판단 D(확산지수)를 보면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4분기 21로 큰 폭의 설비과잉이 존재했으나 2011년 1/4분기 0까지 하락해 과잉이 완전 해소되었다. 또한 설비 평균연수가 과거 10년에서 최근 15년으로 길어져 설비노후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설비투자 부진이 최근의 공급제한의 심각화를 가져온 요인이다.

추가완화는 공급제한과 아베노믹스의 한계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

공급제한 하에서 경기 재침체의 가능성이 커지자 일본 은행은 10/31일 전격적으로 추가 양적완화를 단행하였다. 10월 FOMC에서 QE3를 종료한 미국과는 대조적인 정책기조를 천명함으로써 뚜렷한 신호효과를 의도한 것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통화공급을 연간 80조엔(10~20조엔 추가) 증가 수준으로 조절하고, 장기국채 보유규모도 연간 80조엔(30조엔 추가) 증가 속도로 늘릴 계획이다.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제한적인 엔저효과, 구조개혁의 지연 등으로 일본경제가 직면한 구조문제가 해소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기 전에 발 빠른 조치에

추가 완화정책의 내용

(단위 : 조엔)

	12년말	13년말	14년말	증가속도	
				추가완화 전	추가완화 후
통화공급	138	202	275	~75	80
장기국채	89	142	200	20	80
- 평균 잔존기간		3년	7년		7~10년
CP	2.1	2.2	2.2		불변
회사채	2.9	3.2	3.2		불변
ETF	1.5	2.5	3.8	1	3
J-REIT	0.11	0.14	0.18	0.03	0.09
자산계	158	224	2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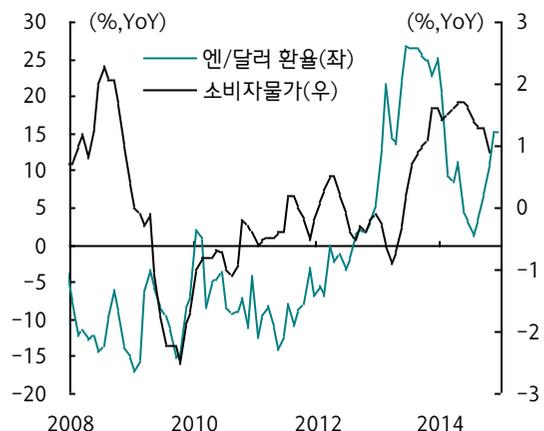
자료 : 일본은행,

나선 것이다. 금융시장은 이를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하여 이후 대폭적인 엔화약세 및 주가상승이 지속되고 있다. 일본은행은 디플레이션 심리의 해소가 지연되고 있는데 대한 조치라고 발표했으나 시장은 2015년중 실시 예정이었던 소비세 인상에 앞서 경기둔화를 막기 위한 선제조치로 보고 있으나 실제로는 아베노믹스의 교착상태를 돌파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 또한 일본경제가 안고 있는 재정적자문제 등 정책제한도 의식한 조치이다. 특히 적자누적으로 재정정책의 한계에 봉착한 일본경제가 통화정책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고 있는 것이다.

추가완화 이후 엔저진행은 일본경제 회복력의 한계를 반영

추가 양적완화는 규모와 내용(국채매입) 등에서 적지 않은 효과가 예상된다. 미국 통화정책과의 대비를 통해서 엔저압력이 커지고, 추가완화가 일본경제 약화의 시그널로 받아들여질 경우 상당 기간 엔화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달러강세라는 외부 요인에 일본의 추가완화라는 요인이 가세해 엔저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엔저가 구조문제(공급제한)를 더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엔저 및 소비세 증세 연기로 일본기업들의 수익 증가, 소비와 설비투자의 회복이 예상되나 공급제한

엔/달러 환율과 소비자물가



주: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소비세 영향을 제거한 수치
자료 : Thomson Reuters Datastream

해소는 장기간에 걸친 투자를 전제로 하므로 단기간 내에 공급능력 부족을 개선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과도한 엔저는 아베노믹스의 한계 노출과 이에 따른 일본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반영된 것이며, 오히려 경기회복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일본총합연구소에 의하면 엔/달러 환율이 105엔을 초과하는 엔저는 무역과 경기에도 역효과를 내고, 주가상승 효과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110엔을 상회하는 엔저는 오히려 일본경기 회복을 억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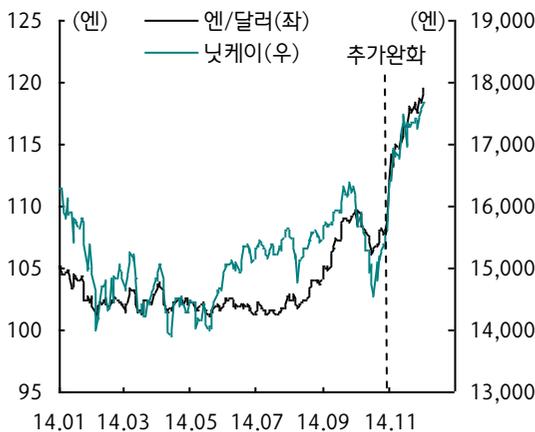
또한 엔저로 물가상승압력이 높아지면 가계의 실질소득 저하와 소비회복 억제가 발생해 디플레이션 탈출이 지연되며, 공급제약을 해소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한다. 다만 최근 유가하락으로 물가상승압력이 약화되어 부담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다.

엔저 속도 완화 예상되며, 아시아 지역에 대한 추가완화의 영향력도 점차 줄듯

추가완화 이후 전개된 빠른 속도의 엔저추세에 변화 가능성이 보이고, 엔저의 파급효과도 약화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추가완화 후 가파른 엔저로 엔/달러가 이미 120엔까지 상승, 향후 엔저의 감속 가능성이 크다. 엔저는

추가완화 이후 일본 주가와 엔/달러 환율



자료 : Thomson Reuters Datastream

일본의 경제구조, 통화정책 등 다양한 변수를 반영하므로 단기간 내에 추세 자체가 변화하기는 어렵지만 미국 정책당국 달러강세 용인 정도에 따라 진행속도가 완화될 수 있다.

둘째, 자금흐름의 변화에 따른 엔저 억제 가능성도 부각될 것이다. 달러강세는 글로벌 유동성이 미국시장 및 달러자산에 집중되기 때문이나 향후 일본계 자금의 자국 환류, 원자재가격 하락에 따른 오일달러 축소 및 유동성의 미국유입 축소 등이 강한 달러 추세를 약화시킬 가능성도 커진다.

셋째, 원/달러 환율의 경우 엔/달러 환율에 동조하면서 1,100원을 상회하였으나 국내 외환시장에 달러공급이 증가하면서 원/달러 및 원/엔 환율의 조정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한·일간 수출경합도 상승에도 불구하고 엔저로 인한 일본의 수출증가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원·엔 동조화도 제한적일 것으로 기대한다.

넷째, 일본의 추가완화가 아시아 국가들에 금리인하 압력을 높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국내 정책금리에 대한 인하 압력은 크지 않아 보인다. 최근 중국의 금리인하도 엔저 등 일본의 영향보다는 중국 자체의 금리자유화의 일환으로 해석되는 등 일본보다 경기상황이 나은 국가들이 일본처럼 대응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추가 완화 이후 외국인투자 추이



자료 : 일본 재무성



외인 거래에 따른 채권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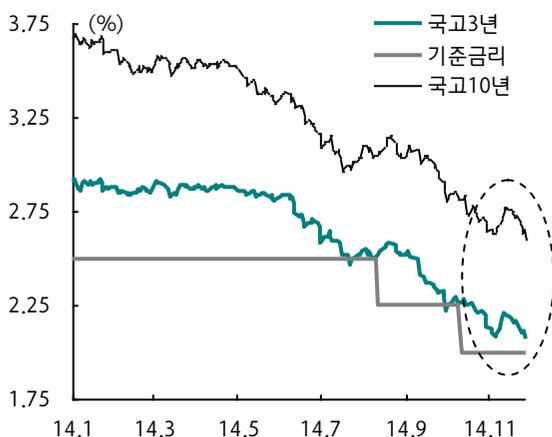


“외인 선물 매도에 의해
금리 상승압력이 부각될 수 있으나
지속 가능성은 제한적 ”

11월 시중금리는 추가 금리인하 기대의 조정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였다. 특히 10.31일 일본의 예상밖 양적 완화 발표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각되었으나, 경제 부총리의 금리 조정에 대한 중립적 발언과 11월 금통위의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로 인해 시중금리는 반등하였다. 그러나 중국이 11.21일 조기에 금리인하를 단행함에 따라 시장에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재확산되며 시중금리는 하락세를 이어갔다.

12월 시중금리 역시 정책 불확실성에 의해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부가 내년 중 정책목표를 경기 부양보다 경제 구조 개혁에 초점을 둘 것임을 시사한 상황에서 시장의 추가 금리인하 기대가 약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가계부채 증가 추이 역시

금리인하 기대 조정에 따라 등락을 거듭한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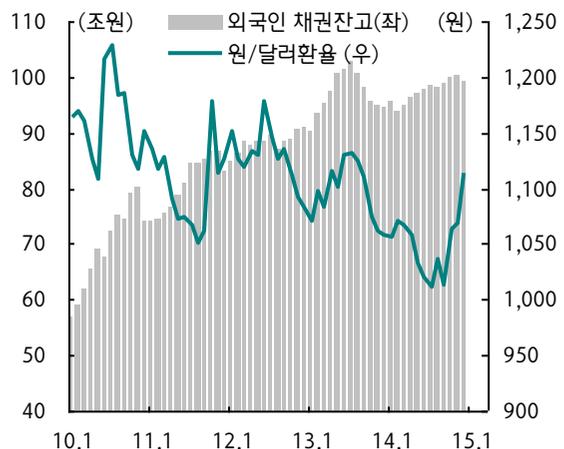


향후 추가 통화완화 정책 가능성을 제한할 것으로 전망된다. 10월 은행권 가계대출이 6년래 최대폭 증가했고, 가계신용이 3/4분기에만 22조원 증가(잔액대비 YoY 6.7% 증가)하는 등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우려가 재부각되는 상황에서, 한은의 가계부채 중점관리에 대한 책무가 부각되며 향후 정책 운신폭을 제한할 전망이다.

다만 디플레이에 대한 우려와 경제지표의 부진, 경제주체들의 심리 위축이 지속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추가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가 잔존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대 조정에 따른 시중금리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상승 추세로의 반전은 상당기간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12월 시중금리는 기관들의 북 클로징 상황에서 외인 거래에 따른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Fed 이코노미스트의 연구에서 금리인상 적기는 금년 4분기인 것으로 발표되고, 최근 석달새 연준의 보유자산이 2,600억 달러 감소(8월말: 4조 700억 달러→11월말: 3조 8000억 달러)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美 정책정상화에 대한 논의가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글로벌 금리 상승과 국내 금리의 저점 인식, 달러화 강세 심화 등에 기반한 외인의 차익실현형 국제 선물 매도가 부각되며 금리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금리 상단에 대한 인식으로 금리 상승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원달러 환율과 외인 채권잔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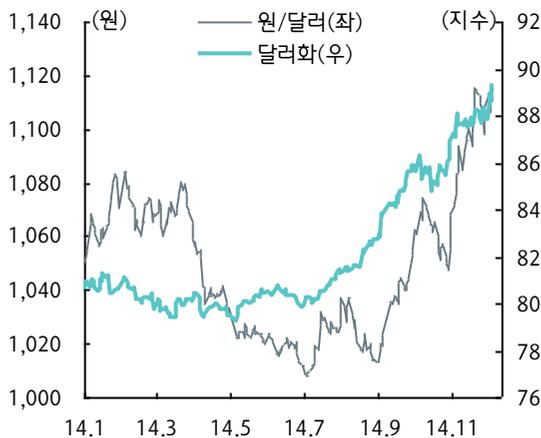
국제환율을 둘러싼 논란 및 향방에 주목



“ 주요국 통화정책 관련 논란 및
대내외 이벤트 결과를 주시하면서
양방향의 변동성 위험에 유의 ”

11월 들어 원/달러 환율은 日 질적·양적 완화(QQE) 확대의 여파 속에 日 3Q GDP 부진 및 소비세율 인상 연기, 조기총선 결정 등으로 엔/달러 환율이 급등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상승세를 이어갔다. 더욱이 기재부 차관 및 한은 총재의 엔저 대응 발언으로 원-엔 동조화가 심화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2013년 8월 이후 처음으로 1,110원선을 상향 돌파하였다. 아울러 美 경제지표 개선에 따른 글로벌 달러화 강세 재개, 中 경기둔화 우려 등도 환율 상승에 일조하였다. 다만 국내 무역 및 경상흑자 지속, 외국인의 주식 순매수 전환 등에 힘입어 환율의 추가 상승은 억제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원/달러 환율 및 달러화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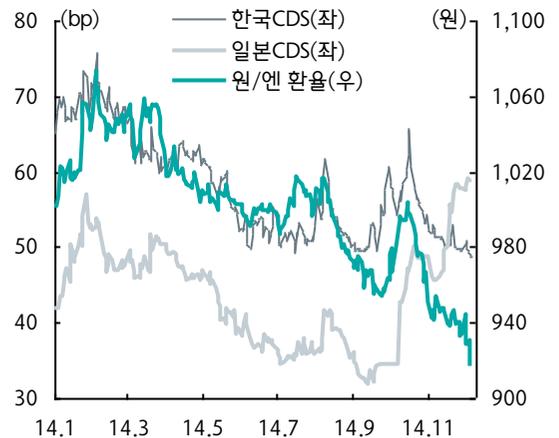


주 : 달러화 지수는 주요 6개국 통화 기준
자료 : Bloomberg

BOJ의 2차 QQE 이후에도 日 경기 부진 및 디플레이션 위험 지속 등으로 추가 완화책에 대한 기대가 이어지면서 엔/달러 환율은 2007년 이후 최고수준(120엔 대로 상승)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양호한 경기 회복세 및 출구전략 우려로 달러 강세가 재차 확대되는 점도 원/달러 환율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韓日간 경제 펀더멘털 및 대외신인도의 차별화 등으로 원/엔 재정환율의 하락세가 확대(엔/달러 환율 상승속도 > 원/달러 환율 상승속도)되고, 원-엔 동조화가 약화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일본 및 BOJ 내부에서 초차 과도한 엔저 및 그에 따른 부작용 우려를 둘러싼 논란이 부각되고 있어 BOJ의 추가 부양책 시행여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국내 무역·경상 흑자 지속, 양호한 외국인 포트폴리오 자금 흐름, 韓 CDS의 하향안정세 등 대내외 인들도 원화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을 종합하면 주요국 경기 및 통화정책 차별화가 부각되는 상황에서 환율의 추가 상승이 이어질 공간이 크다. 다만 일본발 불확실성 및 엔화 향방, 美 재정·통화정책 관련 논란, ECB 정책 행보 등을 주시하는 가운데 양방향의 변동성 위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일 CDS 프리미엄 및 원/엔 재정환율



주 : CDS 프리미엄은 5년물 기준
자료 : 연합인포맥스



주식시장은 대형주 중심의 회복세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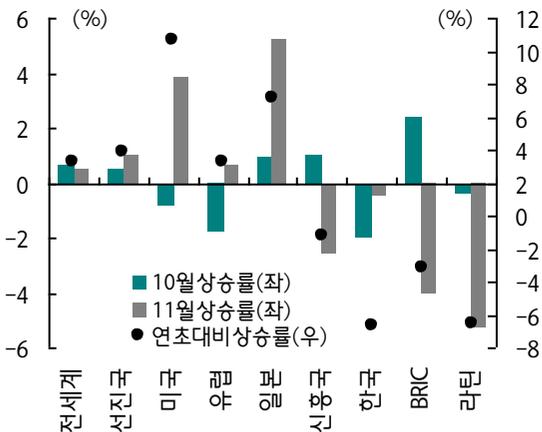


“강한 회복보다는 업종별 순환매 형태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주도 업종 선별은 어려울 전망”

11월 국내 증시는 유가와 환율이 중요한 시기였다. 공급량 증가로 국제 유가 하락은 지속되었으며, 엔화 동조화 현상으로 원달러환율은 상승했다. 이로 인해 항공 및 육상운송 등과 같이 국제 유가 하락 수혜주들이 강세를 보였다. 또한 9월과 10월 순매도를 기록했던 외국인투자도 11월 순매수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다.

12월 국내 증시는 계절적인 영향이 반영될 수 있는 시점으로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중심으로 지수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유럽의 정책 실행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국내 증시 회복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강한 회복보

지역별 MSCI 지수 등락률



자료 : Bloomberg, 하나대투증권

다는 업종별 순환매 형태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주도 업종이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선진국 증시는 경기 부양 기대로 상승 예상

선진국 증시는 전월 반등 이후 큰 이벤트 없이 강보합세를 보이다 부양 기대가 이어지면서 급등했다. 유가 하락으로 연말 소비 기대가 높아진 미국 주요지수는 연일 신고점을 갱신하였으며, 추가 부양 이후 일본 증시도 강세를 보였다. 횡보하던 유로존 증시는 드라기 총재의 정책 발표 가능성으로 반등했다.

12월 미국 증시는 유가 하락으로 소비여력이 증가하면서 연말 소비 기대감이 높아져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전망이다. 단기 과열권에 진입해 상승세가 주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일본, 중국, 유럽 등 국가별 추가 경기부양책 기대로 대외 불확실성이 감소하는 점은 긍정적이다. 유럽은 지난 12월 4일 ECB 경기부양책 발표 등을 바탕으로 단기 반등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은 대외무역에서 엔 약세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 점은 긍정적이나, 중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12월 중순까지 정책 불확실성이 있어 상승추세는 다소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로존 재정 수지 적자 규모 및 체감경기



자료 : Bloomberg, 하나대투증권

신흥국 증시는 각국의 경기부양책 등이 긍정적이나 국가별로는 여전히 차별화

11월 신흥국 증시는 후강통 기대로 중화권을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다. 그 외 남미, EMEA 지역은 하락세를 보였으나, 주요국 부양 기대감에 급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12월 중국 증시는 후강통 시행 초기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다소 추축하였으나, 시장 기대를 상회하는 전격적인 금리 인하로 상승추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향후 추가정책 기대감도 높아 긍정적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인도는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모디 정부 이후 높은 금융시장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글로벌 투자자들이 찾는 중장기 성장 기대감이 높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브라질은 단기적으로는 기술적 반등이 예상되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아직 유의가 필요하다. 러시아는 서방과의 관계가 규정이 어려워 정치/외교적 불확실성이 높아 투자 판단이 다소 어렵다. 서방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표된 경제지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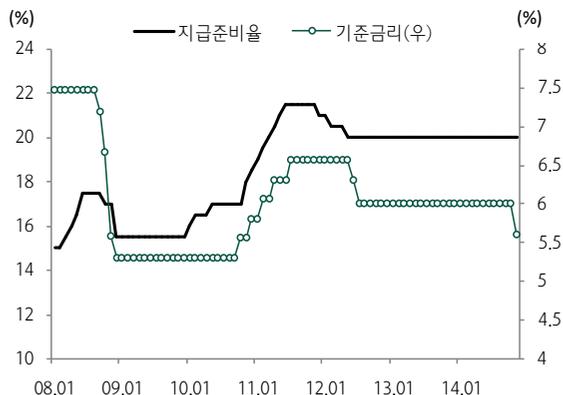
견조한 점은 긍정적이나 통화 변동성이 높아 여전히 불안하므로 투자 여부는 다소 지켜봐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원자재는 계절변수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리츠는 투자 매력이 확대될 전망

11월 원자재 시장은 에너지 가격 추가하락으로 약세를 지속하였다. 반면 미국 리츠 지수는 투자매력이 재확인되며 가격 상승을 지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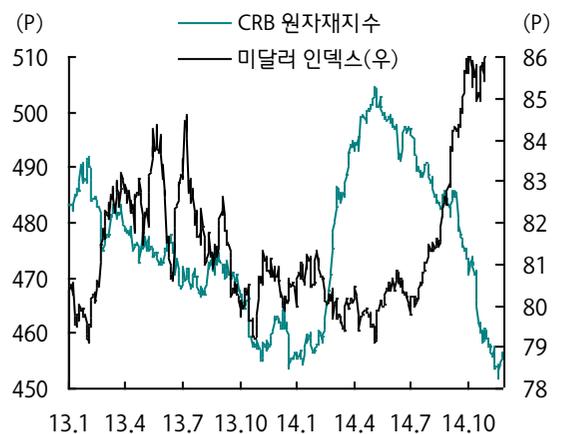
12월 원자재 시장 중 원유는 지난달 OPEC이 현재 원유 생산량 수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하락세를 유지할 것으로 생각된다. 농산물은 하방경직성을 확인하는 등 최근 하락추세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귀금속 연말수요와 천연가스 난방 수요 등 계절변수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해 보인다. 미국 리츠는 MSCI가 GICS 산업분류에서 현재 금융섹터에 포함된 리츠를 2016년 8월말 이후 11번째 독립섹터로 분류할 예정으로, 안정성, 유동성, 성장성 등 장기 투자매력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 지급준비율 및 기준금리 추이



자료 : CEIC, 하나대투증권

미달러 지수 및 원자재 지수 추이



자료 : Bloomberg, 하나대투증권

제조사 재직 K씨, 높은 노후 생활비 고려 금융자산 확대 요구

제조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K씨(50세)는 60세에 은퇴하고 85세까지 생존하며, 은퇴 후 매월 약 400만원의 노후 생활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할 때 K씨가 10년 후 필요한 노후 생활비는 매월 약 512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K씨는 은퇴 후 국민연금 수령액을 월 13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퇴직금은 연금 형태로 매월 90만원씩 수령할 예정이다. 개인연금은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은퇴 후 매월 80만원 정도를 수령할 것으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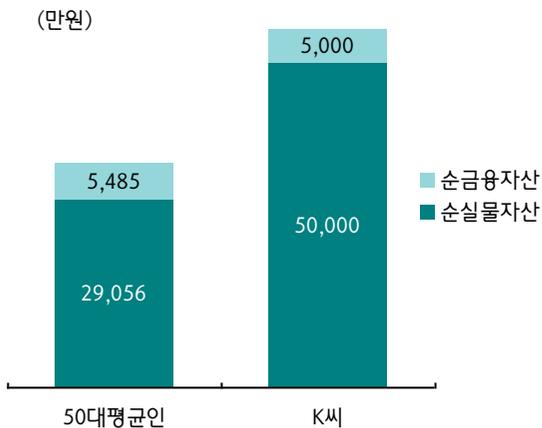
한편 K씨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약 5억원 규모의 순실물자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순금융자산은 5천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K씨는 순실물자산이 50대 평균인 대비 많은 편이며, 순금융자산은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다. 그러나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이며, 자녀 양육 등으로 필요 생활비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금

융자산을 늘리는 형태의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 투자 가능한 순금융자산 비중 확대가 필요해 보인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퇴직연금을 필요 생활비에서 차감하면 은퇴 후 월 부족자금은 약 212만원으로 계산된다. 그리고 85세까지 필요한 월 부족자금 총액의 현재 가치를 합산하면 약 4억 6,619만원이 된다. 현재 시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순금융자산 5천만원과 자산 포트폴리오 조정액 2억 5천만원을 합산하여 운용할 경우 월 부족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약 5.66%의 수익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안정추구형 전략의 목표 수익률에 가까운 것으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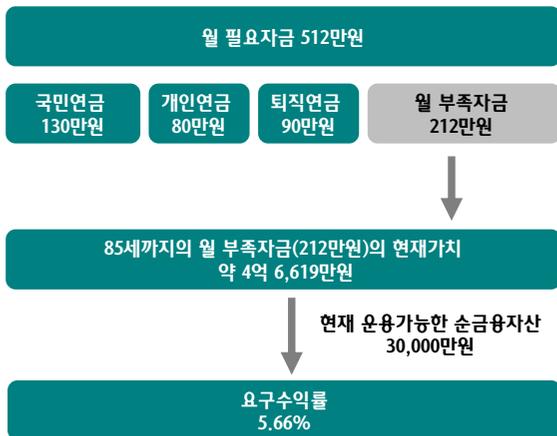
K씨는 50대 평균에 비해 순실물자산은 많으며, 순금융자산은 평균 수준이다. 다만 많은 노후 생활비가 필요하다는 측면과 다소 짧은 노후 준비 기간을 감안할 때 자산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 확대된 순금융자산에 대한 안정적인 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50대 평균인과 K씨의 재무상태 비교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K씨의 노후준비를 위한 요구수익률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금융자산은 안정성을 중시하는 안정추구형 전략이 유효

기대수익률과 위험을 고려할 때 투자성향은 수익추구형, 표준투자형, 안정추구형 등으로 분류된다. K씨가 현 상태로 노후 준비를 유지해나갈 경우 월 부족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수익률은 5.66%로 계산되었는데, 앞선 투자성향을 고려하면 K씨는 안정추구형 포트폴리오 전략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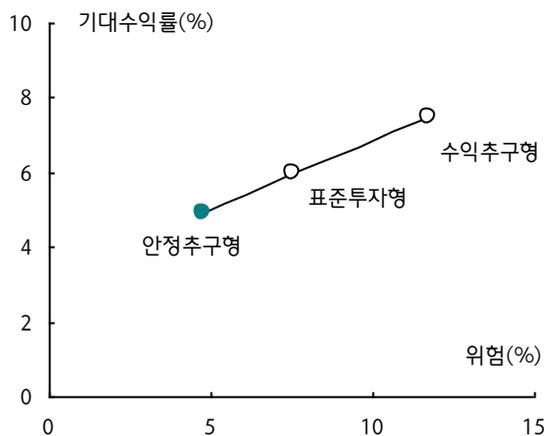
12월 안정추구형 포트폴리오 투자비중은 국내주식 9.0%, 국내채권 25.0%, 해외채권 5.0%, 대안형자산 37.0%, 현금성자산 24.0%로 설정하였다. 전월과 달리 글로벌 통화 완화, 경기부양 정책 기대 등으로 당분간 양호한 흐름이 전망되어 현금 비중을 줄이고 국내 주식과 국내 채권 비중을 확대하여 수익률을 제고한다.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을 중시하며 원금보존을 추구하는 투자 유형인 안정추구형은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최소화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하나,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위해 자

산 중 일부를 변동성 높은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투자자금의 대부분을 채권 및 대안형에 투자하며, 수익 추구를 위해 주식에도 일부 투자한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내 채권의 경우 중국 금리인하와 ECB 완화 등으로 추가 인하 기대감은 유지될 전망이다이며, 대내외 경기 및 수급 측면이 양호해 금리 상승 요인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 채권은 하이일드 채권의 메리트는 지속되나, 최근 주가와외 상관성이 낮아지는 등 가격 변동 리스크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국내 주식은 단기적으로 계절적인 영향이 반영될 수 있는 시점으로 대형주 중심의 지수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대형주 중심의 투자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안정추구형 투자인 만큼 중위험형 및 구조화 상품 등의 대안형 자산 및 현금성자산 비중 또한 상당 부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투자성향별 기대수익률 및 위험



자료 : 하나대투증권

투자성향별 자산배분 비중

(단위 : %)

자산구분	안정추구형	표준투자형	수익추구형
국내주식	9.0(+1.0)	13.0(+1.0)	27.5(+2.5)
선진국주식	-	7.0	20.0
이머징주식	-	6.0	15.0
국내채권	25.0(+2.5)	13.5(+1.0)	7.5(+2.5)
해외채권	5.0	9.0(-1.0)	5.0(-2.5)
대안형	37.0	37.5	19.5
현금성	24.0(-3.5)	14.0(-1.0)	5.5(-2.5)

자료 : 하나대투증권

투자상품은 국고채 및 채권형 펀드 중심으로 상품 구성

12월 안정추구형 포트폴리오는 전월에 비해 현금성 상품의 비중(27.5%→24.0%)을 줄이고, 국내 주식 상품(8.0%→9.0%) 및 국내 채권 상품(22.5%→25.0%)의 비중을 늘린다.

포트폴리오의 9.0%를 차지하는 국내주식은 일등기업 중심의 장기투자 원칙을 중시하는 에셋플러스코리아리치투게더(주식) A, 배당수익률이 높고 구조적 성장가치와 내재가치가 우수한 기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트러스톤장기고배당(주식) A에 투자한다.

포트폴리오의 25.0%를 투자하는 국내 채권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국내 공공물가 인상 등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 잠재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 물가연동국고채(13-04), 우량 회사채에 60%, 기업어음 등에 나머지를 투자하는 정통 회사채 펀드인 흥국멀티플레이4(채권) C에 투자한다.

포트폴리오의 5.0%를 투자하는 해외 채권은 미국 하

이일드 채권에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이자수익과 자본수익을 함께 추구하는 미래에셋노무라미국하이일드(채권-재간접) A에 투자한다.

포트폴리오의 37.5%를 투자하는 대안형 중 10%를 차지하는 중위험형 상품은 국내주식을 중심으로 롱숏전략, 공모주/이벤트 활용전략 등 다양한 전략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유리트립알파(주식혼합) A에 투자한다. 또한 10.0%를 차지하는 혼합형 상품은 채권의 안정적인 이자 수익과 시장 상황을 반영한 적극적인 주식 운용을 통해 추가 수익을 추구하는 하이실적포커스30(채권혼합) A에 투자하며, 나머지 15.0%를 차지하는 구조화상품은 코스피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양방향 원금보장형 ELS에 투자한다.

마지막으로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유동성확보 및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하나UBS 신중MMF(S-26호) C에 24.0%를 투자한다.

투자 상품 포트폴리오

구분	자산	유형	상품명	운용사/자문사	비중	투자기간	목표수익률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국내주식	성장형	에셋플러스코리아리치투게더(주식) A	에셋플러스	4.0%	6개월	8%	
		가치(배당형)	트러스톤장기고배당(주식) A	트러스톤	5.0%	3개월	5%	
	채권	국내	물가연동국고채(13-04)	-	10.0%	9년	연 4%	
			흥국멀티플레이4(채권) C	흥국	15.0%	1년	연 3%	
	대안형	해외	미래에셋노무라미국하이일드(채권-재간접) A	미래에셋	5.0%	6개월	3%	
		중위험형	유리트립알파(주식혼합) A	유리	12.0%	6개월	3%	
		혼합형	하이실적포커스30(채권혼합) A	하이	8.0%	6개월	4%	
	현금성	-	구조화	양방향 원금보장형	하나대투	17.0%	1년	연4%
			하나UBS 신중 MMF(S-26호) C	하나UBS	24.0%	단기	연1.9%	
	합계					100.0%		
개인연금			연금저축보험에 매월 일정액 납입					

주 : 1)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는 안정추구형 상품 포트폴리오를 의미

2) 유형별 투자비중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가능하며 위 자산배분의 정확성 및 안전성은 보장할 수 없으며 참고자료로 활용바람

자료 : 하나대투증권



美 중산층, 노후준비의 중요성은 인식하나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

“노후준비는 후순위로 밀려,
저축액은 목표 대비 8% 수준에 불과”

미국 중산층에게 은퇴 자금 마련은 당장에 해결해야 하는 카드 빚, 가족 부양, 주택 마련 등에 후순위로 밀려 노후를 위한 재정적 준비 상태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Wells Fargo가 실시한 미국 중산층 대상 서베이에 따르면 68%는 노후를 위한 저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평균 누적 저축액은 \$20,000로 목표액인 \$250,000의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비은퇴자 중산층의 1/3은 노후용 저축 계좌에 정기적으로 저축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401(k), IRA 등 포함), 41%는 일상적 생활비 지출 후 노후를 위해 저축할 여력이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들에게는 학자금 대출 및 카드 빚 상환(26%), 자녀·배우자·부모 등 가족 부양(22%), 주택 마련(12%) 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로, 노후 준비는 후순위(11%)에 밀려나 있으며, 50세 이상이 되어야 비로소 노후 준비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최우선 순위(24%)로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절반이 넘는 61%가 은퇴 준비를 위해 현재 소비의 많은 부분을 희생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으며, 79%는 미래에 소득 수준이 증가하면 충분한 노후 대비 저축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래에 더 많은 저축을 하게 되면 현재의 저축 부족분을 보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노후를 위해 현재의 희생을 감수하려 하지 않으며, 노후 준비를 나중으로 미루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이러한 중산층의 태도와는 대조적으로 대부분은 노후 자금 마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75%는 노후를 위한 저축이 현명한 투자라는 점에 동의하였으며, 72%는 노후 준비를 더 이른 시기에 했어야 했다고 후회하고 있었으며, 특히 40~59세 응답률은 81~83%에 달했다.

미 중산층의 연령대별 재정적 우선순위

항목	전체	2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75세
학자금 대출 및 카드 빚 상환	26%	29%	31%	26%	22%	20%
자녀, 배우자, 부모 등 가족 부양	22%	25%	25%	30%	15%	12%
주택 마련	12%	17%	14%	11%	9%	8%
노후 준비	11%	5%	8%	8%	24%	12%
비상시를 위한 예비 자금 마련	10%	13%	10%	9%	9%	8%
의료비 지출	6%	4%	2%	3%	12%	13%
교육비 지출 대비	4%	3%	4%	10%	2%	2%

결과적으로 미국 중산층들은 편안한 노후 생활을 위해 목표로 삼고 있는 저축액(\$250,000, 중위값) 대비 현재 까지 축적된 저축액(\$20,000, 중위값)은 8% 수준으로, 큰 폭의 차이(Retirement saving gap) 있었다.

특히 노후 대비 누적 저축액은 전년도 조사(\$25,000, 중위값) 대비 감소하여 노후 준비 상황이 전반적으로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은퇴를 앞둔 50대와 갓 은퇴한 60~75세들 중 저축액이 25,000\$ 이하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49%, 48%로 나타났으며 40대 응답률은 38%로 특히 40대의 노후 준비 상황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후 희망하는 수준의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은지 묻는 질문에 전체의 53%가 그렇다고 대답하였으나, 그렇다고 응답하는 비율은 25~29세 72%, 30~39세 63%, 40~49세 44%, 50~59세 33%로 급격히 낮아져 은퇴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은퇴 준비의 미흡함을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은퇴에 대한 자신감 부족으로 중산층 미국인의 절반 가량(48%)은 은퇴 후 생활수준이 은퇴 전보다 악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으며, 34%는 평생 소득을 창

출하는 일을 해야만 할 것으로, 31%는 생존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비관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401(k) 가입자들의 응답은 그리 비관적이지만은 않았다. 우선 401(k) 가입자의 90%는 401(k)가 노후 준비를 위한 저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72%는 401(k)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현재만큼 저축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401(k) 가입자와 미가입자의 저축액을 비교해 본 결과 401(k)가입자가 미가입자보다 누적 저축액이 10배 가량 많았다(미가입자 \$3,000, 가입자 \$30,000, 중위값). 주목할 만한 점은 401(k)가입자의 실제 저축액 뿐 아니라, 저축액 목표 또한 미가입자에 비해 높았다는 점이며, 운택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도 가입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401(k)와 같은 연금 제도가 미국 중산층의 노후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판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 풍요로운 노후를 준비하게 하는 동기 부여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4 Wells Fargo Middle-Class Retirement Study,” Wells Fargo, 2014. 10)

은퇴 목표 자금 대비 저축액

항목	
노후 대비 저축액 목표 (중위값)	\$250,000
현재 노후 대비 저축액 누계 (중위값)	\$20,000
목표 대비 저축액 비율	8%
월평균 노후 대비 저축액 (중위값)	\$125
전혀 노후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는 응답자 비율	19%

401(k) 가입 여부에 따른 노후 준비 차이

항목	401(k) 가입자	401(k) 비가입자	차이
노후 대비 저축액 목표 (중위값)	\$350,000	\$200,000	+\$150,000
현재 노후 대비 저축액 누계 (중위값)	\$30,000	\$3,000	+\$27,000
목표 대비 저축액 비율	9%	2%	+7%pt
월평균 노후 대비 저축액 (중위값)	\$250	\$0	+\$250
전혀 노후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는 응답자 비율	5%	37%	-32%p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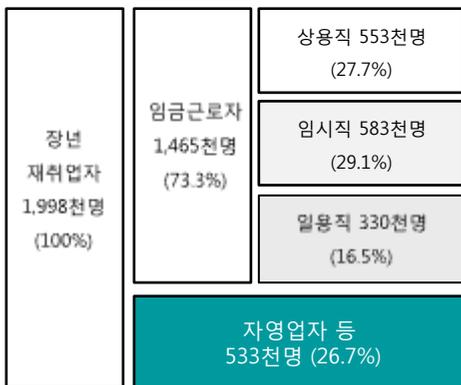
장년 고용 종합대책 발표



“고용 불안, 질 낮은 일자리 재취업, 노후 걱정 등 3가지 문제 해소에 중점”

베이비 부머 대량은퇴에 따른 노동력 부족, 숙련 기술 단절 등의 성장동력 약화가 우려됨에 따라 장년층 노동력 활용을 높이고, 소득 부족에 시달리는 장년층에 일자리 대책을 마련해주어 생계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가고 있다. 특히 장년 고용률은 높아지고 있으나, 주된 일자리에서 평균 53세에 퇴직 후 준비 없이 퇴직하는 경우가 많아 재취업하더라도 임시 일용직(45.6%), 생계형 자영업(2.7%) 등 고용의 질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9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일하는 장년, 활력과 보람이 있는 노후’를 위한 장년고용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장년 재취업자 종사상 지위



| 자료 : 통계청, "경향 고령층 부가조사",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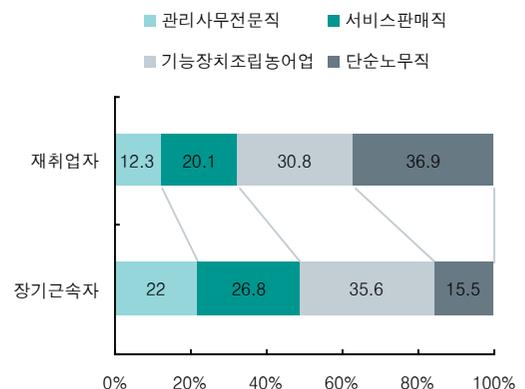
장년 고용 종합대책은 고용 불안, 질 낮은 일자리 재취업, 노후걱정이라는 3가지 문제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재직-재취업-은퇴 등 일자리 단계에 맞춘 특화된 지원 방안과 퇴직연금, 자영업 등 관련 대책과도 연계하여 추진될 예정이다.

퇴직 전 전직지원서비스 지원, 생애경력카드를 구축하여 재취업시 맞춤형 취업알선을 지원하고, 이모작 장려금제도를 신설하며(퇴직 예정자에게 사업주가 훈련 및 취업알선), 전직지원 의무화 법 개정 추진 등을 통해 경력을 살린 재취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60세 이상 정년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 대·중소기업 인재교류 프로그램을 도입, 장년기 근무형태 다양화 등을 통해 근로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및 세제 혜택 등 퇴직연금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장년층의 노후소득 안정화를 추구할 것으로 밝혔다.

이번 대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경우, 60세 이상 정년제 정착으로 근로자들은 현재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하게 되며, 점진적 퇴직기를 거쳐 은퇴기에는 공적 및 사적연금의 중층적 보장으로 노후소득도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년 고용 종합대책" , 고용노동부, 2014. 9. 24)

장년층 재취업시 직종 변화



| 자료 : 고용부, "장년층 근로 및 구직 실태조사", 20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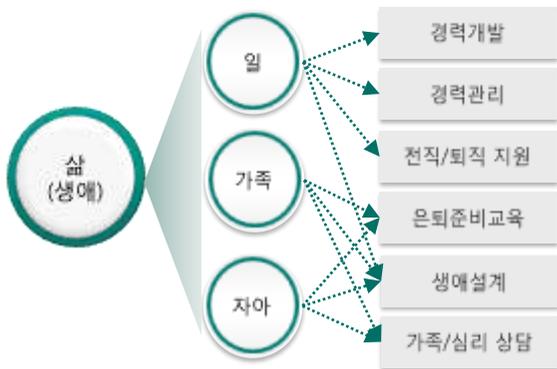
“ 전직지원 서비스, 근로자 생애설계 관점에서 접근해야 ”

“선진국에서는 대부분의 기업에서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 노사 win-win 프로그램으로 정착”

베이비붐 세대로 대표되는 중장년층의 노동력 활용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지난 11월 18일 노사발전재단과 고용노동부는 2014 중장년 전직지원 세미나를 개최, 미국, 일본, 유럽의 중장년 퇴직관리 사례와 정책을 공유하고 국내 중장년 전직지원 서비스의 활성화를 모색하는 세미나를 가졌다.

전직지원 서비스란 사업주의 지원 하에 구조조정이나 정년 등 자발적,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근로자들이 실직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재취업이나 창업 등 새로운 일자리를 찾도록 지원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전직지원 서비스는 퇴직자 달래기의 소극적 도구에서 근로자 생애설계 관리로 확대, 발전해왔다.

근로자 생애설계 (Lifecycle Management)



자료: 김규동, "국내 전직지원 개황 및 기업 사례 중심", 중장년 전직지원 세미나, 2014. 10

재직자 생애설계(Lifecycle Management)란 중장기적 관점에서 개인의 삶이 보다 균형있고 만족스러우며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 상담, 지원제도가 복합적으로 제공되는 제도를 말한다.

선진국의 전직지원 서비스 제공 상황을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전직지원 제도는 80년대부터 일반화되기 시작하여 현재 74%이상의 대기업이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내 재취업 프로그램(3M), 사내 전직지원센터 운영(P&G, Motorola), 노사가 협력하여 진행(보잉)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대부분의 대기업이 복리후생제도 중 하나로 퇴직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퇴직 전 회사생활에 초점을 맞춘 Career Design과 퇴직 후 개인 생활에 중점을 둔 Life Design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의 기업들은 퇴직지원 프로그램이 임직원의 건전한 재산형성을 도와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줌으로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충성도를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프로그램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퇴직 2~3년 전에 운영하던 프로그램을 50세 즈음으로 앞당겨 운영하거나 입사초년생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등 프로그램이 확대,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복지 선진국인 유럽 국가들은 고용 안전망 확충을 위해 정부의 재정적 개입과 관리 기능을 점차 확대, 강화해 나가고 있다. 프랑스는 전직지원을 법적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폴란드, 벨기에, 스페인 등에서는 전직지원 장려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국내 기업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정년퇴직자를 대상으로한 출구전략에 가까운 교육으로, 퇴직 직전에 단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많은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할 준비시간 및 노하우 획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양한 경력개발 프로그램이 전 연령에 걸쳐 시행되고 있는 선진국들의 전직지원 서비스 사례를 통해 생애설계의 관점에서 정부 지원 제도 확충 및 국내 기업들의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2014 중장년 전직지원 세미나", 노사발전재단 및 고용노동부, 2014. 11)

건강보험 노후 의료비 부담을 해소

노후 의료비 부담 해소를 위해 필수적인 상품

민영건강보험은 정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급여부분 본인부담금 + 비급여부분) 및 치료에 따른 진단자금, 간병자금, 생활자금 등을 보장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노인층에서의 의료비 지출이 전체 국민건강보험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본인부담금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노후대책으로 공적 연금을 보완하는 개인연금과 마찬가지로 의료비에 대해서도 민영건강보험을 통한 대비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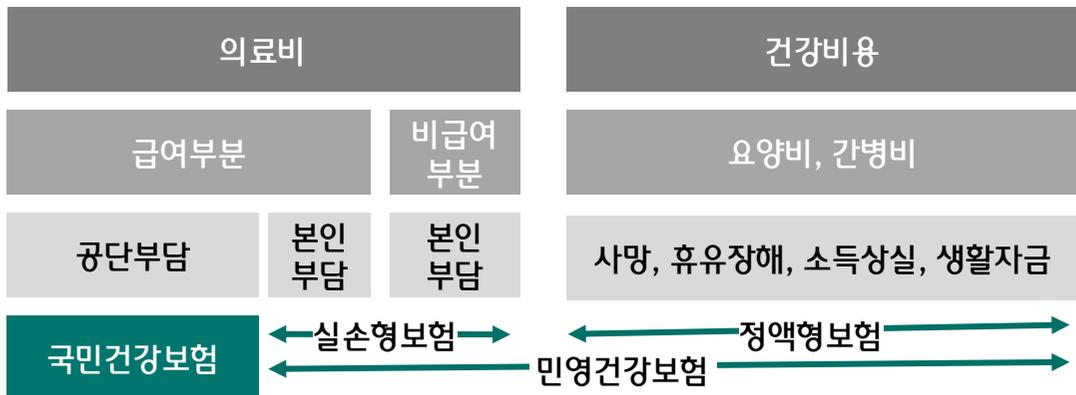
민영건강보험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소위 제3보험으로도 불리며 크게 질병보험, 상해보험, 간병보험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질병보험은 질병에 걸리거나 질병으로 인한 입원, 수술 등의 위험을 주로 보장하는 상품으로 암보험, CI(Critical Illness)보험, 그리고 실손의료보험 등이 포함된다. 다음으로 상해보험은 우연하고도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에 입은 상해에 대하여 치료 등에 소

요되는 비용 등을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마지막으로 간병보험은 활동불능 또는 인식불명 등으로 타인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상태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고령층 대상 건강보험 상품 출시 확대

이러한 민영건강보험이 의료비 부담이 큰 고령층에게 필수적인 금융상품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보장 연령 제한, 비싼 보험료 등으로 인해 막상 고령층에서 동 상품의 활용이 사실상 쉽지 않았다. 다행히 지난 3월부터 노후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되고 최근 발표된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에서는 안전할증범위 확대 등이 논의되는 등 고령층 대상의 민영건강보험 개발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에 출시된 고령자 대상 보험상품이 20개가 넘는 등 보험사들의 고령층 시장 공략도 본격화되고 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민영건강보험 상품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다. 특히 공적 건강보험의 재정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만큼 노후의료비에 대한 개인적 준비가 필요하다.

민영건강보험의 범위



무배당

행복 knowhow

행복 미래 설계



Top3 건강보험(보장성)

이 상품은 보장성보험으로, 저축성보험(연금)이 아닙니다.

무배당 행복knowhow Top3 건강보험(보장성)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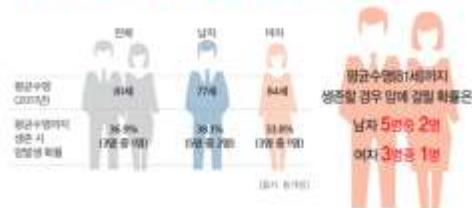
- 1** 한국인의 주요사망원인 Top3 질병(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을 보험료 인상 없이 최대 100세까지 보장
 - 사망원인 순위별 상위 3가지 질병 집중 보장
 - 고액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시 최대 8천만원 보장 (일반암 최대 4천만원 보장)
- 2** 고객 니즈에 맞는 보험종류 선택 가능
 - 30%연가환급형: 피보험자가 만기 생존 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30% 환급
 - 건강관리자급형: 납입기간 종료일 이후 매년 계약자(종업)에 생존시 월납 보험료를 납입기간과 동일한 기간동안 매월 지급 (연간 12회 확정지급, 최대 1억의 납입한 보험료까지 지급)
- 3** 성인 3대질병(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진단확정 시 납입면제 가능
 - 장액지급률 50% 이상 경우에는 물론 '임보장개시일 이후 임 진단확정', '보장기간중 뇌졸중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될 경우 차액 이후의 보험료 납입 면제



한국인 사망원인, 2명 중 1명꼴 "암·뇌혈관·심장질환"

1위. 암 입원자 100만명 시대 2017년 사망 20만 4천명	보험료 납입면제!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시 50% 이상 장액에서
2위. 뇌혈관질환 우리나라 사망원인 2위, 뇌혈관 질환 2017년 사망 14만 7천명	
3위. 심장질환 심혈관 질환자수 57만 5,000명, 매년 평균 6.2% 증가 2017년 사망 14만 7천명	

평균수명(81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 발생 확률 36.9%



보험사 **하나생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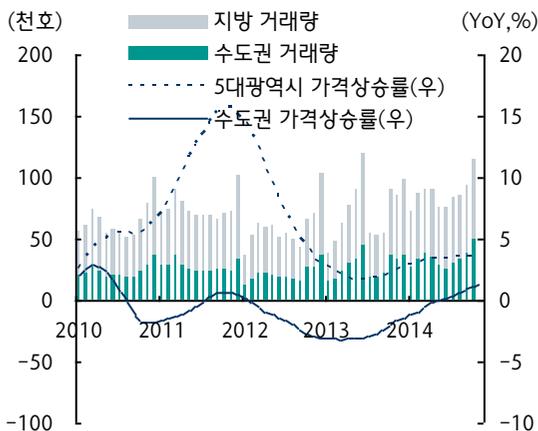
은행사 **하나은행**

부동산 3법 개정을 두고 정치권 힘겨루기 지속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폐지, 재건축
조합원 1인 1가구 분양제한 완화, 분양가
상한제 완화 등 처리 가능성 주목”

가을 이사철을 지나면서 주택시장은 다시 소강상태로 접어들고 있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세를 이끌었던 수도권 월간 상승률은 9월 0.26%에서 11월 0.12%로 급감했다. 지방 광역시는 대구 주택시장의 호황에 힘입어 가격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지역별로 시황이 엇갈리고 있다. 겨울철 비수기로 접어든 것도 일부 영향을 미쳤지만, 10월까지의 주택거래량이 금융위기 이후 최고수준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주택가격 상승세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부동산시장 회복을 위해 정부에서 고강도 대책을 쏟아내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성

아파트거래량 및 주택가격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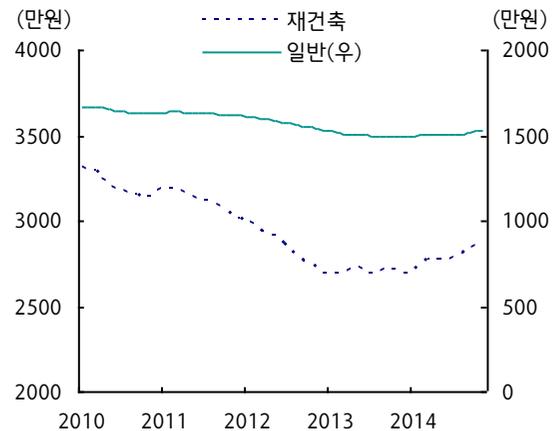
| 자료 : 국토교통부, KB은행

적은 만족스럽지 않다.

9.1 부동산대책의 악발이 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재건축 연한규제 완화라는 호재가 발표된 9월 전후로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8~9월 서울시 재건축 아파트의 월간 가격상승률은 1%를 웃돌았다. 연간으로 10%를 넘는 급등세이다. 그러나 10월에는 0.5%로 상승률이 반 토막 났으며 11월에는 -0.2%의 하락세로 돌아섰다.

최근 주택시장 가격상승세의 한 축이었던 재건축 시장이 냉각되면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13년 이후 정부의 활성화 대책 및 저금리 기조가 주택시장을 이끌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의 파급효과가 축소될 징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최근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폐지, 재건축 조합원 1인 1가구 분양제한 완화, 분양가상한제 완화라는 부동산 3법의 연내 통과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상승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재건축 시장을 다시 부양하고, 기존 주택시장에 비해 호조를 보이고 있는 신규분양 시장의 온기를 계속 이어가려는 의도라 할 수 있다.

서울시 아파트 3.3㎡당 가격



| 자료 : 부동산114

초과이익 부담금의 폐지는 재건축 아파트 시장의 최대 이슈이다. 개발비용 및 정상적 집값 상승분을 제외한 재건축 개발이익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납부할 경우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이 크게 하락하기 때문이다. 특히 개발이익 규모가 큰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12년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부담금 부과를 유예시킨 상태이므로, 부담금이 폐지되거나 유예시기가 재 연장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부담금이 부과된다. 야당에서는 부자 특혜 및 세수 감소를 이유로 초과이익 부담금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야당의 입장이 완강해 최근에는 부담금을 폐지하는 대신 유예시기를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대한 정부 의지가 강해 유예기간을 일부 조정하는 선에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재건축 조합원의 분양주택을 1호로 제한하지 않고 주택 수만큼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정치권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 및 여당은 불필요한 규제라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야당은 투기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현황

구분	주요 내용
부과 방식	2009.9.25일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조합 대상 - 비수도권은 2009.7.1일 이후 관리처분인가 신청분 개별 조합원 초과이익 규모에 따라 누진방식으로 부과 - 3천만원 이하 면제 - 3~5천만원 10% - 5~7천만원 20% - 7~9천만원 30% - 9천~1억1천만원 40% - 1억1천만원 초과 50% 초과이익 = 준공시점 주택가격 - 개시시점(추진위 승인) 주택가격 - 정상집값상승분 - 개발비용
추진 경과	2006.9월 부담금 도입 - 서울 중랑구, 송파구, 용산구 등 4개사업장 부담금 부과 2012.11월 부담금 부과 유예(2014년 말까지) - 2014년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시 부담금 면제 2014.3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안 발의 2014.12월 부담금 유예법안 발의(2019년 말까지)
파급 효과	부담금 폐지 또는 유예시 전국 442개 단지(수도권 307개소)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

있다. 복수의 주택 분양을 허용하되, 분양 주택 수에 상한선을 두는 절충안이 현재 논의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2009년 폐지 법안이 발의되었음에도 논의가 지지부진했으나 최근 주택시장 부진이 이어지면서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이 점차 우세해지고 있다. 다만 최근 분양한 서울시 반포 아크로리버 파크의 3.3㎡당 분양가가 평균 4천만원을 넘어서는 등 분양가 급등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어 전면 폐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도 공공택지에서는 유지하되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택지에는 적용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주요 수혜지역이 재건축 단지라는 점에서 부동산 3법이 통과되면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세가 다시 점화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9.1 대책 발표 이후처럼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최근 주택매매 수요가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고 있는데다 조합원 부담금의 불확실성 등 재건축 사업의 리스크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2015년 주택시장의 시황은 부동산 3법의 처리 이후 금리 등 시장환경의 변화에서 판가를 날 가능성이 높다.

분양가 상한제 현황

구분	주요 내용
내용	택지 및 건축비에 적정 이익을 보낸 분양가를 산정해 그 가격 아래도 분양하도록 한 제도 - 도시형 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관광특구 내 초고층(50층 이상 또는 높이 150m 이상)에는 비적용 상한제 적용 아파트를 분양 받을 경우 전매제한 적용 - 수도권 및 지방 공공택지 : 1년 - 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85㎡ 이하) : 민영주택 2~5년, 보금자리 4~8년 분양 당첨자는 일정 기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다른 아파트 재당첨 불가 (민영주택은 제외)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85㎡ 이하 5년, 85㎡ 초과 3년 - 그 외 지역 : 85㎡ 이하 3년, 85㎡ 초과 1년
추진 경과	1989.11월 주택분양가 원가연동제 도입 1999.1월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2006.2월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2008.1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2009.2월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 발의 2012.6월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법안 발의 - 주택가격 급등 또는 급등 우려 지역

겨울철 중요시되는 건강관리법

우리 몸에서 중요한 비타민D

다른 계절보다 해가 짧은 겨울은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D가 부족해지기 쉽다. 또한 추운 날씨 탓에 외부 활동보다 실내 활동을 주로 하다 보니 햇빛을 받아 생성되는 비타민D 부족 현상이 쉽게 나타난다. 비타민D는 우리 몸 중에서 뼈의 건강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성분인데 칼슘의 흡수를 촉진시켜 뼈를 강화시켜준다. 비타민D가 부족할 경우 골다공증이 악화되며, 뼈가 휘어지는 구루병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비타민D가 결핍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계절성 우울증'은 일조량 감소와 연관이 있는데, 일조량이 적은 겨울에는 행복호르몬이 분비되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감소하여 기분 침체 등의 우울함을 가져온다. 우울증은 대개 불면증, 이유 없는 불안감, 혈액순환 장애로 만성통증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데 특히 척추 질환 환자 같은 경우에는 생활의 불편으로 우울감이 더 커지기 마련이다. 이러한 비타민D 결핍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일주일에 2~3회씩 햇볕을 쬐며 가벼운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다. 등푸른 생선이나 달걀노른자, 간, 우유, 버섯 등과 같은 음식 섭취와 약이나 주사를 통하는 방법도 좋다. 체내 비타민D가 현재 충분한 상태인지 결핍 상태인지는 간단한 혈액 검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검사는 3~5일정도 소요되며, 3개월에 1회씩 검사 받을 것을 권장한다.

〈비타민D 결핍 시 나타나는 증상들〉

- 빈혈과 계절성 우울증
- 뼈 손상 및 뼈 골절의 노화
- 혈액의 흐름 불규칙화
- 각종 치주질환 발생
- 기타 암, 당뇨, 심장/피부/호흡기 질환

겨울철 건강관리 10계명

1. 적정 실내온도(18~20℃) 및 적정 실내 습도(50~60%) 유지하기
2. 최소 10분~30분 정도 창문 열어 환기시키기
3. 자주 물 마시고, 로션 등을 통해 피부건조 방지하기
4. 건강에 좋은 한방차 마시기
5. 외출 시 목도리, 장갑 등 챙기기
6. 빙판길 대비 바닥면이 넓은 신발을 착용하기
7. 걸어서 땀 나는 운동하기(체온유지, 혈액순환)
8. 추위는 심장혈관 및 뇌혈관에 부담을 주므로 오랜 실외 활동은 자제하기
9. 규칙적인 실내 운동하기
10. 한 낮의 충분한 햇볕 쬐기(비타민D 결핍방지)

겨울철 추위 잡는 건강 예방법

겨울인 12월이 오며 한파 가득한 날씨가 매일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인간의 생체 리듬이 불안해지고 면역력이 저하된다. 이로 인한 건강관리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1. 독감(인플루엔자) 백신 맞기

독감으로 인해 폐렴, 탈수증과 더불어 천식 및 당뇨 환자의 경우 합병증에 걸릴 위험이 높고, 만성질환 자체도 악화될 수 있다.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항체 생성까지 2~4주가 걸리므로 미리 준비하여 독감 주사를 맞도록 하자.

2. 면역력 저하를 막는 반신욕

반신욕은 가장 편안하게 몸을 데우고 체내 순환을 높여 면역력의 저하를 막는다. 또한 체내 순환을 개선하면서도 체력 손실이 적어 평상시 기력이 없거나 몸이 냉한 사람에게 효과가 좋다.

(하나은행 행복knowhow팀 )

한방차 효능으로 추운 겨울 건강하게 보내기

겨울철 건강에 좋은 한방차

찬바람이 뽀뽀 부는 겨울철은 실내외의 급격한 온도차로 인해 인체의 면역력이 약해지기 쉽다. 또한 실내의 환기가 쉽지 않아 각종 질병에 노출되기 쉬우며, 이러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체질에 맞는 음식을 평소에도 꾸준히 섭취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감기 예방과 질병 치료, 원활한 혈액순환 등에 도움이 되 따뜻한 겨울 한방차가 있다. 겨울철 보약이나 다름없는 다양한 한방차 종류에는 무엇이 있을까?

1. 국화차

국화차에 풍부하게 함유된 비타민C는 면역력을 높여 주기 때문에 감기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준다. 겨울철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 손발이 차가워지거나 각종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클 때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 몸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어준다. 특히 몸에 열이 많은 사람, 몸이 찬 사람 관계 없이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 누구나 마셔도 좋다. 꽃잎과 줄기를 건조시킨 후 물에 넣고 우려내서 마시며, 꿀을 첨가해 섭취하는 것도 좋다.

2. 대추차

비타민C가 풍부한 대추차는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속을 편하게 하며 진액의 부족이나 기운의 부족을 낮게 하는 효과가 있다. 뿐만 아니라 대추의 단맛 성분은 진정작용 성분이 있어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에게도 좋다. 심장과 폐를 윤택하게 하고 기침을 멈추며 오장의 기능을 보해주는 대추는 인삼과 같이 넣고 차로 끓이면 허약한 몸을 보하게 되고 혈액 순환을 도와 탱탱한 피부결을 유지시켜준다. 따뜻한 성분이 많아 열이 많은 사람은 피하는 것이 좋지만, 몸이 찬 사람에게는 효과

적이며 열을 생기게 한다. 건대추를 약한 불로 오래 끓여 달이면 대추차가 완성되는데 끓인 대추는 체를 이용해 곱게 으갠 다음 과육까지 차로 마시면 좋다.

3. 오미자차

단맛, 신맛, 매운맛, 쓴맛, 짠맛 다섯가지 맛이 나는 오미자는 만성 기관지염(기침, 가래, 천식)과 혈관계 질환 및 피로회복에 좋다. 기침에 특효약인 오미자는 목소리가 가라앉았을 때 원래대로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며, 천연 피로회복제로 불리기도 한다. 오미자 속에는 가래를 삭히는 효과가 있어 기침을 자주해서 가래가 끓는다면 수시로 오미자차를 마시도록 하자. 또한 손상된 간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어 간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좋다. 오미자차는 오미자를 미지근한 물에 1시간 정도 우려 다음 증발에서 살짝 끓여 마시면 된다.

4. 계피차

추운 날씨로 인해 떨어진 몸의 온도를 높이는 데는 계피차가 제격이다. 해열, 진통, 흥분, 발한, 자양강장의 기능이 있는 만병통치약인 계피차는 몸이 허하여 추위를 타는 경우 땀을 내주는 효능이 있다. 또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수족 냉증이 있는 사람에게 더욱 효과가 있다. 식욕을 북돋아주기도 하고 해열 기능으로 인해 감기를 완화시켜주는 효과도 있어 겨울 한방차 중 으뜸으로 꼽힌다. 계피와 생강이 1:1로 들어간 계피생강차는 감기질환 환자에게 좋은 약이 된다. 각종 질병이 찾아오기 쉬운 면역력 약해지는 겨울철, 효과가 빠른 약도 좋지만 이러한 한방차들을 통해 건강한 겨울을 보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나은행 행복knowhow팀 )

하나금융그룹, 중국민생투자유한공사와 MOU 체결

하나금융그룹은 중국 내 최대 규모의 민간투자회사인 중국민생투자유한공사와 포괄적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12월 4일 중국 북경에서 양사간 MOU 체결을 통해 구조조정 및 인수합병, 산업 전반에 대한 민간 투자, 글로벌 네트워크 영업력 확대 등 양 그룹간 협력 확대 및 공동 사업기회를 모색하기로 했다.



외환은행, 2년 연속 'KS-CQI 콜센터 품질지수' 1위 선정

외환은행은 11월 19일 한국표준협회 주관으로 실시된 'KS-CQI 콜센터 품질지수 평가조사'에서 2년 연속 시중은행 부문 1위에 선정되었다. 동 은행은 2008년 금융권 최초로 콜센터에 대한 KS인증을 획득하였으며, 표준화된 업무 메뉴얼 적용, 불만 자동 감지 시스템 금융권 최초 도입 등 다양한 혁신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하나은행, The Banker志 선정 '대한민국 최우수은행' 수상

하나은행은 11월 27일 The Banker志의 Bank of the Year 시상식에서 국가별 최고상인 '2014 대한민국 최우수 은행'을 수상했다. 동志는 총자산, 대출 규모의 지속적 성장 및 외환은행과의 통합 등 하나은행의 성장 및 발전가능성과 인도네시아 법인 통합, 현지화 전략 등 국내외 우수 전략 및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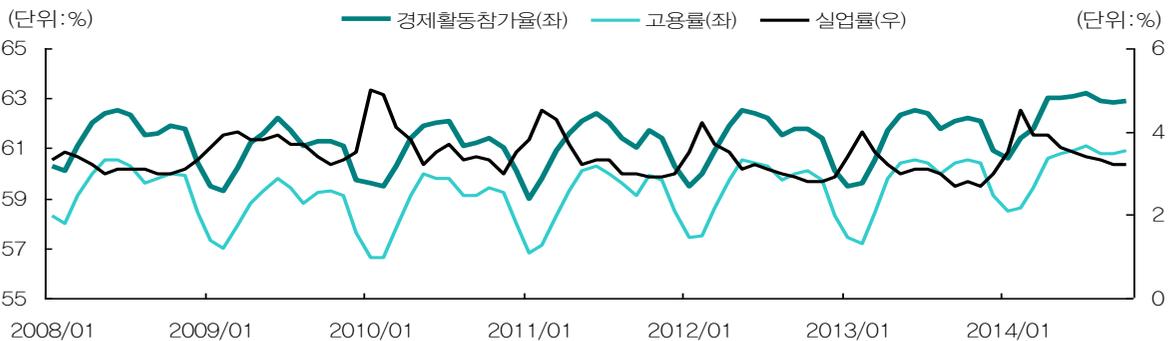
하나생명, 온라인보험 브랜드 '하나 i Life 출범'

하나생명은 12월 2일 온라인보험 브랜드인 '하나 i life'를 공식 출범했다. 하나 i life가 판매하는 보험상품은 암보험과 정기보험 등 보장성 보험 2종으로, 두 상품 모두 꼭 필요한 보장으로만 구성되고 별도의 설계사 수수료가 없어 보험료가 저렴한 것이 장점이며,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가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1. 경제활동 및 고용

연도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전체	15~19세	~29세	~39세	~49세	~59세	60세 이상	전체	15~19세	~29세	~39세	~49세	~59세	60세 이상
2009	60.8	6.2	63.1	74.0	79.6	72.1	37.3	58.6	5.4	58.2	71.3	77.7	70.3	36.7
2010	61.0	6.9	63.2	74.6	79.8	72.7	37.0	58.7	6.1	58.2	72.0	77.8	70.9	36.0
2011	61.1	7.6	63.2	74.7	80.1	73.1	37.4	59.1	6.8	58.5	72.2	78.4	71.6	36.5
2012	61.3	7.7	62.8	75.0	80.0	73.8	38.4	59.4	7.0	58.1	72.7	78.3	72.2	37.5
2013	61.5	7.7	61.6	75.4	80.0	74.5	39.1	59.5	6.9	56.8	73.2	78.4	73.1	38.3
2014.1~10	62.5	8.5	63.2	76.3	80.8	75.9	40.1	60.2	7.8	57.4	73.8	79.0	74.2	39.1
2014.9	62.8	7.8	62.9	76.6	80.8	76.3	41.7	60.8	7.3	57.5	74.4	79.2	74.7	41.0
2014.10	62.9	7.2	62.6	76.6	81.1	76.6	41.8	60.9	6.8	57.5	74.3	79.4	74.8	41.1



국민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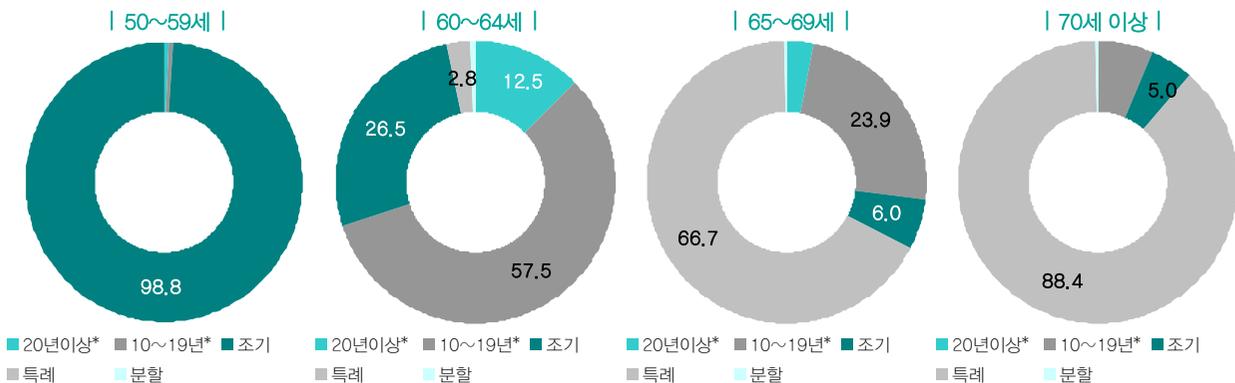
국민연금공단

1. 가입자 현황

(개소, 명)

연도	총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	
		사업장	가입자	계	농어촌			도시
2008	18,335,409	921,597	9,493,444	8,781,483	1,940,510	6,840,973	27,614	32,868
2009	18,623,845	979,861	9,866,681	8,689,861	1,925,023	6,754,838	36,368	40,935
2010	19,228,875	1,031,358	10,414,780	8,674,492	1,951,867	6,722,625	90,222	49,381
2011	19,885,911	1,103,570	10,976,501	8,675,430	1,986,631	6,688,799	171,134	62,846
2012	20,329,060	1,196,427	11,464,198	8,568,396	1,956,215	6,612,181	207,890	88,576
2013	20,744,780	1,290,557	11,935,759	8,514,434	1,962,071	6,552,363	177,569	117,018
2014.8	21,098,914	1,361,089	12,178,969	8,571,178	1,991,849	6,579,329	194,842	153,925

2. 2014년 8월 연령별 노령 연금 급여수급자 현황



주 : *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의미

주택연금

1. 신규 가입 및 보증공급 현황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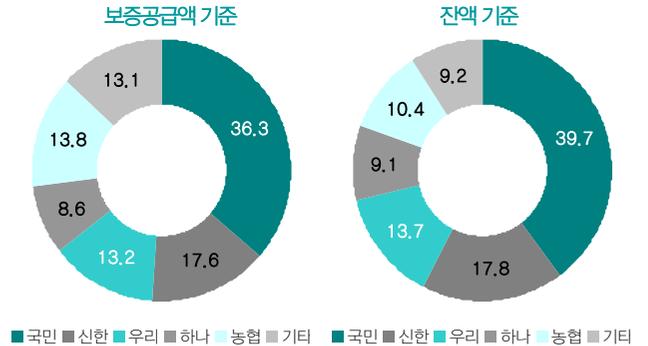
연도	신규가입	보증공급액
2009	1,124	17,474
2010	2,016	30,361
2011	2,936	41,000
2012	5,013	69,006
2013	5,296	62,950
2014.9	378	4,223
2014.10	467	5,016



2. 2014년 10월 금융기관별 주택연금 현황

(억원)

은행	보증공급액	잔액
국민은행	1,819	102,150
신한은행	751	45,843
우리은행	663	35,342
하나은행	433	23,518
농협	694	26,709
기타	656	23,619
합계	5,016	257,181



퇴직연금

1. 2014년 9월 기준 가입 근로자수 및 사업자 현황, 계약수(말기준)

(명, 건)

구분	근로자				사업자			
	합계	DB형	DC형	기업형IRP	총계약수	DB형	DC형	기업형IRP
은행	8,186,597	5,485,293	1,509,826	81,049	1,380,822	93,479	129,473	52,503
생명보험	3,164,107	2,852,907	198,272	3,329	217,931	74,860	18,791	1,628
손해보험	1,111,662	1,014,748	61,319	264	58,908	1,930	20,126	228
증권	2,758,578	2,508,408	139,023	415	121,327	2,982	6,215	240
근로공단	135,892	-	133,293	405	32,637	-	32,427	210

2. 제도유형별 도입사업장 현황

(개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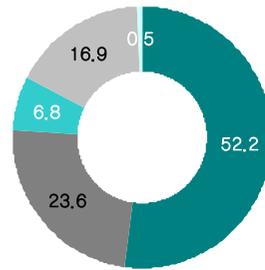
구분	합계	DB형 단독 도입		DB, DC 동시도입		DC형 단독도입		기업형IRP 도입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2010	94,455	34,414	36.4	1,590	1.7	34,904	37.0	23,547	24.9
2011	139,151	53,351	38.3	2,876	2.1	56,476	40.6	26,448	19.0
2012	203,488	68,031	33.4	4,615	2.3	101,086	49.7	29,756	14.6
2013.12	254,138	80,107	31.5	6,812	2.7	131,741	51.8	35,478	14.0
2014.3	259,986	80,746	31.1	6,868	2.6	136,963	52.7	35,409	13.6
2014.6	262,373	80,906	30.8	6,886	2.6	142,450	54.3	32,131	12.2
2014.9	272,455	83,003	30.5	7,280	2.6	146,952	53.9	35,220	12.9

3. 2014년 9월 업권별 적립금 현황 및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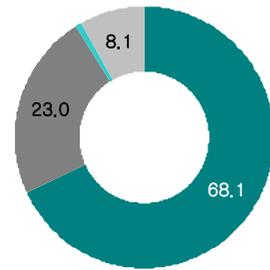
(억원)

구분	합계	DB형	DC형	기업형IRP	개인형IRP
합계	890,338	606,338	204,622	6,997	72,381
은행	465,049	276,243	134,060	6,720	48,025
생명보험	209,772	171,966	27,074	209	10,522
손해보험	60,506	51,362	6,862	15	2,268
증권	150,339	106,767	31,998	30	11,545
근로공단	4,672	-	4,629	21	22

업권별 적립금 현황



상품 유형별 적립금 현황



■ 은행 ■ 생명보험 ■ 손해보험 ■ DB형 ■ DC형 ■ 기업형IRP ■ 개인형IRP ■ 증권 ■ 근로공단

4. 2014년 9월 적립금 운용현황 및 비중

(억원, %)

구분	DB형		DC형		기업형 IRP		개인형 IRP		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원리금보장형 자산	예적금	293,447	48.4	126,319	61.8	6,117	87.4	42,154	58.3	468,035	52.6	
	금리확정형보험	222,886	36.8	21,913	10.7	151	2.2	8,794	12.1	253,745	28.5	
	금리연동형보험	19,590	3.2	5,901	2.9	64	0.9	2,591	3.6	28,145	3.2	
	국채	394	0.1	1,078	0.5	0	0.0	1,459	2.0	2,931	0.3	
	통안증권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정부보증채	0	0.0	0	0.0	0	0.0	0	0.0	0	0.0	
	원리금보장ELB	49,392	8.1	4,012	2.0	0	0.0	2,671	3.7	56,075	6.3	
	RP	9,514	1.6	2,761	1.3	3	0.0	1,468	2.0	13,746	1.5	
	발행 및 표지어음	0	0.0	167	0.1	0	0.0	50	0.1	217	0.0	
	기타	0	0.0	1	0.0	0	0.0	9	0.0	10	0.0	
원리보장금 소계	595,222	98.2	162,152	79.2	6,336	90.6	59,196	81.8	822,905	92.4		
실적배당형 자산	실적배당형 보험	150	0.0	1,537	0.8	12	0.2	386	0.5	2,085	0.2	
	집합투자증권	주식형	1,115	0.2	174	0.1	1	0.0	143	0.2	1,433	0.2
		혼합형	1,247	0.2	9,626	4.7	1	0.0	1,902	2.6	12,777	1.4
		채권형	4,449	0.7	27,733	13.6	617	8.8	4,739	6.5	37,539	4.2
		재간접	157	0.0	237	0.1	0	0.0	24	0.0	418	0.0
		부동산/실물/특별	112	0.0	0	0.0	0	0.0	0	0.0	112	0.0
		기타	1,151	0.2	5	0.0	0	0.0	0	0.0	1,156	0.1
	집합투자증권 소계	8,231	1.4	37,775	18.5	620	8.9	6,808	9.4	53,434	6.0	
	직접투자	583	0.1	195	0.1	0	0.0	393	0.5	1,171	0.1	
	실적배당 소계	8,964	1.5	39,507	19.3	632	9.0	7,587	10.5	56,690	6.4	
대기성 자금	2,151	0.4	2,964	1.4	29	0.4	5,598	7.7	10,743	1.2		
총계	606,338	100.0	204,622	100.0	6,997	100.0	72,381	100.0	890,338	100.0		

5. 2014년 9월 금융업권별 적립금액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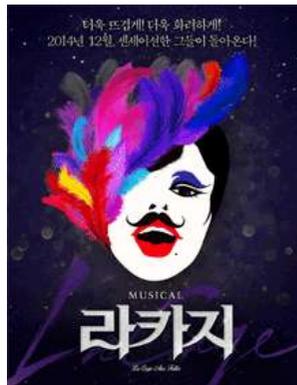
(억원, %)

구분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증권		근로복지공단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원리금보장형	437,543	94.1	198,365	94.6	59,028	97.6	123,386	82.1	4,583	98.1
실적배당형	21,731	4.7	10,511	5.0	1,277	2.1	23,127	15.4	44	0.9
기타	5,775	1.2	895	0.4	201	0.3	3,826	2.5	45	1.0
합계	465,049	100.0	209,772	100.0	60,506	100.0	150,339	100.0	4,672	100.0

주 : 기타는 운용을 위한 대기성 자금(고유계정대, 발행어음 및 기타 현금성 자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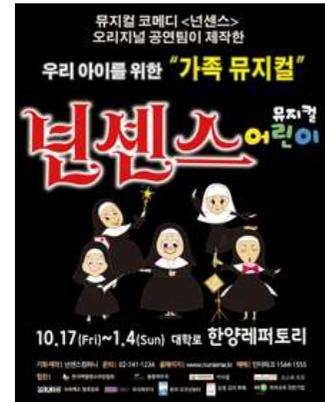
하나은행 고객님께만 드리는 특전! 하나컬처클럽의 공연 할인 혜택을 지금 누리보세요.

뮤지컬, 연극



기간	2014.11.01 ~ 2015.02.01	2014.10.21 ~ 2015.01.18	2014.10.11 ~ 2015.01.04	2014.12.05 ~ 2015.01.03
장소	샤롯데씨어터	대학로 뮤지컬센터 대극장	디큐브아트센터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할인	VIP 20%, R 30%, S/A 40% 할인	R 25% 할인	VIP 25%, R 30%, S/A 40% 할인	40% 할인
기본가	VIP : 140,000원 → 112,000원 R : 110,000원 → 77,000원 S : 80,000원 → 48,000원 A : 50,000원 → 30,000원	R : 110,000원 → 82,500원	VIP : 130,000원 → 97,500원 R : 110,000원 → 77,000원 S : 80,000원 → 48,000원 A : 60,000원 → 36,000원	R(평일) : 100,000원 → 60,000원 R(주말) : 110,000원 → 66,000원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공연



기간	2014.11.25 ~ 2014.12.28	2014.11.29 ~ 2014.12.28	2014.10.17 ~ 2015.01.04
장소	대학로 소리아트홀 1관	대학로 르메이에르씨어터	대학로 한양레퍼토리
할인	40% 할인	40% 할인	최대 75% 할인
기본가	일반석: 20,000원 → 12,000원 (단, 12/24~25은 정가판매)	일반석: 20,000원 → 12,000원	어린이: 20,000원 → 12,000원 어른: 20,000원 → 5,000원 연말(12/24~31): 20%할인

사이트 주소 : 인터넷에서 하나컬처클럽으로 검색하세요.

- 이용 방법 : 인터넷뱅킹 로그인 > 하나컬처클럽 이용동의 > 예매사이트로 이동

하나금융그룹 행복디자인 대표전화



하나은행	행복디자인센터	(02) 2002 - 1147
	퇴직연금부	(02) 3788 - 5454
외환은행	퇴직연금실	(02) 729 - 0806
하나대투증권	연금사업부	(02) 3771 - 7173
하나생명	행복금융프라자	(02) 3709 - 7252

www.hanaif.re.kr

